

2011. 8. 25 (창간호)

부산대학교경영대학

호원경영



부산대학교경영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전화 051.510.7663~4
팩스 051.510.7670
홈페이지 <http://biz.pusan.ac.kr>

호원경영 2011. 8. 25 (창간호)

호원경영 2011. 8. 25 (창간호)



호원경영

2011. 8. 25 (창간호)

CONTENTS

- 02 **발간사**
김유일_경영대학장
- 03 **축사**
김인세_부산대학교총장 / 김보두_상과대학총동문회장
김승영_AMP총동문회장 / 손인_MBA총동장회장
- 06 **경영소식**
주요뉴스 / 교수관련 / 장학 / 대학행사 / 학생수상 / 국제관련 등
/ 동문회 / MBA / AMP
- 017 **교수칼럼**
국제경영교육인증을 추진하면서_최종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_최종연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적정경영, 경영자가 나서야_조영복
목표지향적 경영학도가 되자_최수형
소주한잔 합시다_김종관
모교의 발전은 후배 지원으로 시작됩니다_김유일
- 026 **동문칼럼**
동문인터뷰_허병도
성공을 만드는 리더가 되자_정철길
꿈과 도전의 삶을 살라_이재승
눈과 귀를 열고 중소기업에 도전하자_김대연
산업 친화적 대학, 창의성과 인간성을 중시하는 대학_이병걸
- 037 **학생칼럼**
내가 꿈꾸던 대학_오초봉
Winners never quit, and quitters never win_류승훈
도약하는 경영대학,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경영학도 친구들에게_김성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의 4년을 되돌아보며_오려화
끝과 시작의 자락에서_서혜진
또 다른 2년 반 뒤에는 이런 동기회가 되었으면_문병희
晩學의 즐거움_송미란

047 주요행사 및 학생참가기

3캠 이어 달리기_김낙대
경영대학 출범기념 체육대회
경영대학 학생회 출범식_김민한
경영대학 산업현장견학_김정길
글로벌엔터프라이저십_윤진성
농촌 학생 연대활동_최소민
PNU BIZ 경영사례연구_권민철, 김현경
글로벌 챌린저_이재용
유학생 친선의 밤_마조균
IT 봉사단 몽골의 다녀오다_박선률

060 2012학년 학부 입시안내

062 경영대학 발전기금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김유일 **홈페이지** <http://biz.pusan.ac.kr> **전화** 051.510.7663~4 **팩스** 051.510.7670
편집장 김경영 **조교** **편집원** 안성배(07 경영), 허남건(07 경영), 양재웅(07 경영), 최천재(10 금융), 권미현(08 시각디자인) |
발행일 2011년 8월 25일 **편집디자인·인쇄** 군앤군디자인 051.441.8288

대학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를



경영대학장
김 유 일

우리 경영대학은 62년 동안 이어온 상과대학에서 경영학부가 독립하여 새롭게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경영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염원과 대학 본부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1970~80년대의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위상을 되찾고,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Asia Top 10, World Top 100의 경영대학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단과대학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영대학은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경영인재 육성기관으로, 글로벌시대의 경영역군 양성기관으로 외관과 내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영교육인증제는 경영교육 인프라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 경영대학은 출범과 함께 획득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경영교육기준인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 획득을 위해서도 대학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5년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대학으로 변화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동문과 지역유지들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가족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영대학 소식지인 '효원 경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지는 대학 구성원의 대학발전 의지와 노력, 재학생들의 소망과 성과, 동문들의 동향, 지역사회 유지들의 기대 등의 소식을 편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영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로 '효원 경영'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대학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소식지를 통하여 우리 경영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대학구성원과 동문 등 우리 경영가족들이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대학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영가족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 경영가족들의 애정이 우리 대학의 발전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경영대학으로

동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년에 빛나는 역사를 가진 상과대학은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명문 단과대학으로서 경영인 양성의 산실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글로벌 경영인력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과대학에서 경영학부를 분리 독립시켜 경영대학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경영대학은 과거 상과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산대학교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인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총장
김인세

새로운 명문 단과대학이 되기 위해 경영대학장을 위시한 소속 교수들이 일치 단결하여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국제화, 연구력 증진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부산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영어강좌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부산대학교의 국제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대학이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과 경쟁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부산대학교 학과평가에서 인문사회계열 중 경영학부는 2년 연속 1등을 하는 등 학과 운영 및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대학당국과 교수들만의 노력만으로는 경영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없습니다. 동문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만 경영대학이 진정한 국내 명문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려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경영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한 글로벌 경영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과대학 제2의 부흥기를 만들기 위해 경영대학이 새롭게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경영대학이 성년이 되어 영광스러운 제2의 상과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님의 시구절처럼 새로운 역사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경영대학이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국화꽃을 피우길 동문가족들과 함께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 경영’을 통하여 동문여러분의 즐거운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문 가족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자공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상과대학 총동문회장
김 보 두
(주)삼보씨푸드 회장

상과대학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상대70학번 김보두입니다.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경영' 창간호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과대학 전 선후배 동문을 대표하여 경영대학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을 위하여 많이 힘쓰신 경영대학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주위 환경에 적극 앞서가기 위하여 상과대학을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으로 나누어서 전문화한 것은 바람직한 결단이라고 사료되며, 이번에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 경영'을 창간하여 앞서가는 글로벌 정보 및 교내 정보를 교환하여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모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모교를 졸업한 후 약 35년간 사회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 부산상대 졸업생이 우수하고 성실하여 국가의栋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공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남을 배려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열심히 하면 결과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어느 대학 출신 못지않은 성공한 인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영대학 재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의 중심으로



AMP 총동문회장
김 승 영
(주)금영 회장

우리는 지금 IT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IT의 접속이 시니어들에게는 아직 번거로움이 많아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 활동에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 경영대학원의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하면서 경영학의 많은 이론지식 습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수료 이후의 지속적 소통의 구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 이번 경영대학 소식지 발간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움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경영' 발간의 역할은 경영대학원 원우회와 학교 그리고 총동문회 구성원 상호간에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지속적 배양은 물론 조직 역량 강화로써 부산대 동문의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 중심 활동에도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영대학원 동문들께서도 경영대학 소식지 발간의 성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동문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대학원 발전을 추진하면서 소식지를 창간하는 경영대학원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환태평양권의 핵심 역량 대학으로

존경하는 경영대학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대학원 MBA총동문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지를 통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걱정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가족 여러분들은 평안하시리라 믿고 있으며, 또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마음 깊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의 더 나은 발전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현재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적시에 투자하는 경영대학 가족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와 응원을 드립니다.

현 시대는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끊임없는 자기연마를 통하여 지적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경영대학 과정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공필수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으며, 둘째는 교과과정이 전문화, 세분화되어지고 셋째로는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려운 학구적인 면학 분위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영남지역의 최대명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여러 환경과 시대 조류의 변화로 단순히 학위취득의 목적으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졸업생 뿐 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영대학 과정은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앞으로는 행정상 편의보다 학생 중심의 운영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전환한다면 환태평양권의 핵심 역량대학으로 발돋움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영대학 가족여러분!, 학문에 대한 열정처럼 우리 각 과정 별 경영대학 동문회와 총동문회의 모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하여 각 과정 별 동문회의 든든한 구심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영대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영대학의 발전과 성공이 곧 나의 이익이며 나의 발전이 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선후배간의 상호 유대관계에도 관심을 갖으시면 동문회와 여러분의 발전도 함께 하리라 확신합니다.



MBA 총동창회장
손 인
하나인 치과병원 원장

주요 뉴스

경영대학 출범

평소 경영학부의 소망이었던 경영대학의 독립이 실현되었다. 2009년 2월에 시작된 “단과대학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가 완료된 6월부터 구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2010년 9월에 상과대학과 국제학부 관광컨벤션학과 행정학과 일부 등 관련학과를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으로 분리 개편하였다.

경영대학은 상과대학 경영학부의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금융공학전공 3개 전공을 경영학과의 단일학과로 통합하였으며, 경제통상대학은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를 경제학부로, 무역국제학부를 무역학부로 하고, 입학 후 제2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국제학부를 입학정원을 가진 국제학부로, 행정학과를 공공정책학부로, 독립학부이었던 관광컨벤션학과를 관광컨벤션학과로 조정하여 구성하였다.

경영대학 경영학과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경영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수진의 증원, 교과과정의 개편, 강의시설의 확장 등 교육인프라를 보강하고 있다. 2010년 9월에 신규교원 5명 공채, 무역국제학부와 산학협력단의 교수 4명 전입으로 교수진이 28명에서 37명으로 확충되었고, 외국인 교수(1명)의 지원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전임교수 1명과 전임강사대우 8명을 공채하여 교수진을 45명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3개 전공을 통합하는 구조조정과 교육의 글로벌화에 따라 교과과정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1학년에 CEO와 성공한 선배가 대학생들과 장래의 진로를 멘토해주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저십” 강의를 개설하였고, 전공과목을 엄정 보완하고 영어강의를 대폭 확대하였다. 지도교수제를 활성화하여 학생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교육의 내실을 더욱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대학학원 개편

경영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논문학위 최소취득학점을 30학점, 무논문학위 취득학점을 36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공과목은 과목당 2학점제에서 3학점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점의 상대평가제에서 C이하 비율을 20%로 확대하여 면학분위기를 강화하였다.

현재의 경영학전공, 국제경영전공, 노사관계전공을 통합하고 국제경영, 경영정보,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회계학의 7개 트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트랙의 기본과목은 영어강의의 분반을 운영하여 글로벌화와 전문대학원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

국내외 경영교육인증 추진

경영교육인증은 경영교육의 내실화를 인증하는 제도로 교수진의 규모,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과 타당성, 교육시설의 적합성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국내 대기업은 경영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을 선호할 추세이다.

우리 대학은 경영교육인증을 수년 전부터 준비하여 “경영교육인증 신청” 과제를 수행한 김태혁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서문식 홍태호 김진우 교수팀이 이를 보완하여 지난 5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위하여 경영교육인증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서문식 교수, 위원에 홍태호 김진우 교수, 간사에 배현숙 조교가 수고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인증사무국에서는 인증시스템을 가동하고 강의계획표의 개선, 지도교수제 실시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은 경영교육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인증하는 것으로,

이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은 해외 대학에서도 동격의 자격을 보유하게 된다.

금년부터 5년 계획으로 국제경영학교육인증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AACSB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최종서 교수, 당연직위원으로 부학장 홍태호 교수, 부원장 엄철준 교수, 학과장 김종기 교수와, 위원으로 김진우, 강상훈, 김명중, 곽춘중, 전경주 교수가 임명되었다.

상과대학 62년사 편찬

부산대학교가 1946년 5월에 설립되었고 1948년 9월 상학부가 개설되었으며 1953년 4월에 상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지난 2010년 9월에 상과대학이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으로 분리되어 상학부 시절을 포함하여 상과대학이 62년간 존속하였다. 해방 후 부산이 상업도시로 대학에서도 상학이 중시되었고, 상과대학이 부산대학교의 선도대학으로 역할을 해 왔다.

이제 발전적으로 분리되어 상과대학의 명칭을 쓰지 않게 됨에 따라,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고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발전해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상과대학 62년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 편찬사업은 무역학부의 하용수 교수가 맡아서 수고하기로 하였다.

전임대우강사 채용

2011년 2학기부터 부산대학교는 전임대우강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전임대우강사제도는 현재의 시간강사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매학기 12시간 강의에 전념하고 방학에도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산대학교 전체에 4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는데 경영대학은 그중 4명과 자체비용조달로 4명을 추가하여 모두 8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 자체 비용조달은 계약학과인 삼성전기-MBA전공과 부동산전공에서 각각 1/3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발전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다.

계약학과는 매학기 등록금의 5%를 경영대학(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전임대우 채용에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기-MBA전공의 지성권 주임교수와 부동산전공의 이찬호 주임교수에게 경영대학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김무성 교수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선출

김무성 교수가 2010년 11월 26일 건국대에서 개최된 한국파생상품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17대 회장에 선출돼 1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한국파생상품학회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에 관련된 이론, 실증 분석과 함께 관련 제도 연구와 보급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 1회 국제학술대회, 연 2회 정책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기학술지 ‘선물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김정교 교수 AMP 학술상 수상

김정교 교수가 2011년 1월 17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AMP총동창회 2011 신년하례 및 초청강연회에서 AMP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정교 교수는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후학양성에 많은 공헌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조영복 교수 미소금융재단 이사 선임

조영복 교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추천으로 (재)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미소금융재단은 휴면예금을 비롯한 1조원의 기금으로 금융소외계층과 사회적기업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

교수관련

이장우 교수 BB21사업 1차년도 우수사업단 선정

4단계 BB(Brain Busan)21 사업에서 이장우 교수의 '부산 금융 중심지 선진화를 위한 금융·선물 학술 연구 사업'이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단은 8개 대학 22개 사업단 중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 실사결과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우수 사업단에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은 참여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 졌으며, 세미나, 특별강연, 학술대회 등 학생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총장간담회와 송년모임

2010년 12월 14일, AMP강의실에서 개최된 총장간담회에서 김인세 총장은 “부산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상과대학을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으로 분리하였으며 앞으로 국제관 건립, 교수충원 등 본부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두 대학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산대학의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는 인사말씀이 있었다. 두 대학 소속교수는 대학발전에 관한 현안문제와 본부의 정책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와 본부의 응답이 있었다. 총장간담회를 마치고 가진 2010학년 2학기 종강 및 송년모임에 가벼운 기분으로 참석한 교수들이 총장의 의지와 경영대학의 변화와 발전 등의 의제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학과평가와 교수업적평가

두 번째 실시된 학과평가 결과가 2010년 12월에 공표되었는데 인문사회분야에서 경영학부의 금융공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이 37개 학과/전공 중에서 1,2,4위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내년부터는 학과평가 결과를 학과 인센티브에 반영할 것이라 하며, 계속해

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2011년 1월 28일, 매년 실시하는 교수업적평가가 교육, 연구, 봉사 3분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는 교수성과 인센티브에 반영된다.

명예교수 초청간담회



2011년 1월 11일, 온천장 '어가'에서 상과대학을 퇴직한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민병채, 정

순태, 박홍립, 이해주, 임석현, 박찬목, 이명재, 허화, 김광수, 임정덕 등 10분의 명예교수가 참석하였고, 대학에서는 경영대학의 김유일 학장, 홍태호 부학장, 엄철준 부원장, 김종기 학과장이, 경제통상대학에는 황규선 학장, 김호범 부학장, 하용수 무역학과장, 이대식 산학협력담당장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소식을 나누고 대학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테니스 동호회

교수 취미동호회인 테니스 동호회는 매월 첫째 월요일에 대학 테니스코트에서 정기모임을 가지고 교수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꾀하고 있다. 2010년 11월 9일의 추계친선대회에는 8개조가 참가하여 2011년 5월 16일 춘계친선대회에는 6개조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11년 4월 23일 전국대학 교수테니스대회에 부산대학교 대표로 경영대학의 서문식, 옥기울 교수가 참가하여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국공립대학 경영대학(원)장 협의회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주관으로 2011년 4월 22일 동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회원대학 28개교 중 20개교 학



(원)장이 참석하였고, 논의의 주제는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으로 계약학과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부산대의 경영대학

장이 발표하여 여러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으며, 운영실태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발전기금위원회

경영대학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2011년 5월 18일 경영발전기금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장은 김유일 원장, 간사는 엄철준 부원장, 위원에 홍태호 부학장, 김종기 학과장당연직으로, 서문식 옥기울 조영복 최종서 최종열 교수는 임명직으로 선임되었다.

본 위원회에서 경영대학 발전기금은 부산대학교 발전기금내에 두기로 하고, 금년의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였고,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영1인 1계좌 갖기운동’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83학번 장학금



2010년 9월 8일 학장실에서 83학번 동문회의 윤일현 회장과 윤우근 김종기 등이 동기회에서 모은 기금으로 가정형

편이 어려운 유은주, 최정은 학생에게 2010학년 2학기 장학금 100만원씩 전달하였다.

2011년 3월 15일에도 윤일현 회장등이 유승훈, 최정은 학생에게 2011학년 1학기 장학금 100만원씩 전달

하고 온천장 ‘더파티’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격려하였다. 83동기회에서는 매학기 2~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산 장학금

정준수 명예교수가 2008년 정년퇴임하면서 1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여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경영학과에서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인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한 명예교수가 출연한 기금으로 장학금을 받은 2009년의 하정화, 양소현 학생은 은사님의 재정적 지원에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마라톤 장학금

김유일 교수가 마라톤을 완주하여 모은 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2011년 2월 23일에는 경영대학 학생회 간부 10명에게 경영대학 학생회를 잘 이끌어 활기찬 대학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뜻으로 각 30만원씩 지급하였다.

상대동문회 장학금

상대동문회의 김보두 신임회장은 2011년 3월 22일 허심청에서 개최한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동문회의 존재의미가 모교를 도우는 것인데 미약하지만 금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하며 경영학부 1명과 경제학부 1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 지급하였다.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여 모교에 대한 기여가 더 커지기를 기대해 본다.

AMP55기 장학금

2011년 6월 AMP 55기가 모교에서 AMP강의실에서

대학 행사

부부합동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경영학부 박서희, 유승훈, 신현숙, 박재병, 권민철 학생에게 각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AMP55기 동기회 회장단은 내년에도 이 행사와 장학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경맥제

2010년 9월 28~30일 동안 상대학생들의 축제인 경맥제가 열렸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체육행사, 가요제, 무역중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모든 이를 즐겁게 했다. 경영대학이 국제통상대학과 분리되어 출범하였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경영대학 체육대회



경영대학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3일 넉넉한 터에서 체육

대회가 열렸다. 푸른 하늘아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줄다리기, 족구, 피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함께 땀을 흘렸다. 체육대회 후 이루어진 뒷풀이는 경영인들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친선의 밤

2010년 12월 20일 효원굿플러스 에서 열린 2010년 유학생 송년의 밤에 상과대학의 외국유학생과 한국학생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영대학장은 힘든 타국생활

에서도 학업을 무사히 마친 유학생들을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이후 2011년 5월 27일 10·16기념관에서 열린 외국유학생 친선의 밤 에서도 상과대학의 외국유학생과 한국학생 약 300명이 모여 2011학년 1학기를 끝낸 외국유학생을 격려하고 금년에 입학한 신입 유학생을 환영하며, 한국학생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학부 신입생 입학식



2011학년도 부산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2/14 경암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그동안 책

자로만 발간해오던 ‘대학생활안내서’를 디지털화한 DVD로 제작해서 신입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보다 열람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축사에서 김인세 부산대 총장은 “미래는 역경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며, “확실한 목적의식과 효원인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두루 갖춘 지성인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가 되라”고 당부하였다.

경영대학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1년 2월 23일 ~25일 간 경영대학 1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오

리엔테이션이 거제도 노자산수련원 에서 2박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진행되어 온 행사였지만 경영대학 1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명사강연, 삼성중공업 견학, 노자산 등산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2박3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통해 경영대학 1기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서로 어울려 친목도모와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계획하는 등 많은 추억거리를 남겼다.

Global Entrepreneurship 특강



경영대학 발족과 함께 2011년 3월 8일부터 경영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Global Entrepreneurship 특강이 개설되었다. 이 특강은 성공한 선배 CEO,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는 명사들을 초빙하여 강연형식으로 신입생들이 삶의 목표를 정립하며, 계획성 있고 알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대학 신입생들이 보다 큰 꿈을 품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경영대학 학생회 출범식

2011년 3월 30일 경영대학 학생회 출범식이 열렸다. 많은 학생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학생회장 이하 임원진의 웅립식이 진행되었다. 임원진들은 경영대학이 새로 출범한 만큼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학생간부와의 대화(간담회)



경영대학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수, 조교, 학부생, 대학원생, 유학생 등 각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가 부족했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고충을 밝히고 경영대 출범과 발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PNU BIZ 경영사례연구



글로벌 기업의 최신 경영 사례 연구를 통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경영환경을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2010년 5월 27일 경영사례연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22개팀 44명이 참석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 선정되었다. 'IFRS의 이해와 전략적 대처'를 주제로 최우수상에 뽑힌 친절한 회계씨(권민철, 김현경)팀은 해외기업탐방 지원금을 제공받아 하계방학 중 해외기업탐방을 다녀오게 된다.

Global Challenger 2011

2011년 5월 27일 상학관에서는 해외 탐방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PNUBIZ Global Challenger 2011 대

학생 수상



회가 열렸다. Global Challenger 대회란 경영 분야에서 세계 각국 최

고수준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사회단체 등 탐방 지역을 선정한 뒤 탐방 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계획을 세워 연구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로 탐방제안서를 작성해서 경연을 펼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3개 팀, 26명이 열띤 경연을 펼쳤고, 대상은 ‘교환학생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주제로 탐방계획서를 작성한 GPS(이재용, 박철우)팀이 수상했다.

경영대학 Open-Campus

2011년 5월 28일 상학관에서 부산, 경남지역의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대학 Open-Campus 가 열렸다. 새롭게 바뀐 경영대학 입시제도와 커리큘럼 등을 소개하고 캠퍼스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오픈캠퍼스를 통해 부산, 경남 지역의 유망한 인재들이 새로 출범한 경영대학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업체 탐방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산업체탐방의 일환으로, 6/21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에 20여명 참가하였고, 6/22 부산 북항 선상탐방에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원

자력발전소 견학에서는 전력의 경제적 생산에 따른 산업 기여도를 파악하고, 또한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붕괴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부산 북항 선상탐방에서는 도시친수지역으로 재개발중인 현장과 자성대부두 감만 부두 등을 선상에서 볼 수 있었고 오후에는 비가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학장과 학생 6명은 영도 중리에서 영도 해안길, 남항대교, 송도, 암남공원까지의 산책로를 걸으며 참가자 간의 우의를 다졌다.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최우수상 수상

경영대학 금융통화 동아리 ‘F&M’의 ‘FT’팀이 2010년 7월 21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지역(부산·경남·울산·제주)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대 수상팀은 저금리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근거를 검토해 금리인상을 결정·제시했다.

데상트코리아 아이디어 공모전 마케팅부문 은상 수상

경영학과 윤거일(마케팅전공 석사10학번)학생이 ‘2010년 제3회 데상트코리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마케팅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지도: 경영학과 신종국 교수) 윤거일 학생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마케팅 관련 연구에 더욱 정진하며 특히,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샤 마케팅&디자인 공모전 금상 수상

화장품 브랜드 미샤((주)에이블씨엔씨)가 진행한 ‘2010 제4회 미샤 마케팅&디자인공모전’에서 부산대 Finishe팀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경영학과 김영서, 김현지(07학번), 경제학과 정성원(05학번)학생으로 구성된 수상팀

은 '여성화장품 시장 내 획기적인 신상품 제안'이라는 주제로 여성 제모시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시 '2010 부산 대학생 투자분석대회' 대상·최우수상 수상

부산대학교 '만선', 'PH'팀이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열린 '2010 부산 대학생 투자분석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만선'팀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조선업의 전망에 대한 분석'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호주 Deakin University 본 대학 방문

호주 Deakin University의 administrative staff인 Mr. Ben Stubbs와 Ms. Ann Johns가 2010년 09월 06일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Deakin University의 ELS, 유학, MBA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Deakin University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 경영대학의 경영대학원, Techno-MBA, 삼성 테크노 MBA등을 Deakin University 측에 소개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양 학교간의 학생교류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마이애미대학 교수 본 대학 방문

2010년 11월 01일 마이애미 대학의 Sooun Lee 교수가 본교를 방문하였다.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가 전공인

Lee 교수는 부산대학과 마이애미대학의 교환학생 협의와 관련해 본교를 방문하였고, 원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본교의 영어수업을 비롯한 여러 현황들을 둘러보았다. 마이애미 대학은 미국 내에서도 학부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유명하기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교환학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영대학 교수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지속적 협의와 교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대학 교수의 계절 학기

외국대학의 교수들이 계절학기 중 경영대학의 전공과목의 강의를 맡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University of Southern Indiana의 임종철 교수는 2010년 1학기 국제재무관리 맡아 수업하였다. Hofstra University의 김위생 교수는 2010년 여름계절학과 2011년 여름계절학기 국제재무관리 강의를 하였다. 2010년 겨울계절학기에는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의 배성철 교수님이 재무사례분석 강의를 하였고, Mississippi State University의 심정필 교수님이 경영정보시스템을 강의를 하였다. 2011년 여름계절학기에는 KIMEP의 한윤식 교수님이 회계학원리 강의를 진행하였다. 모두 영어로 진행된 강의로서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과 더불어 영어실력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신축 국제관 협의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으로 분리하고 이에 따른 건물확보를 위해 나온 것이 국제관 건립이다. 경영대학은 각 단과대학이 독립 건물을 갖는 것이고 건물간의 거리를 최대한 띄우는 것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 국제관의 선택권을 양보하여 현 상학관을 경영관으로 사용하고 국제관 완공 시 리모델링을 요구하였다.

동문회

경영대학 소식지 편집회의

경영대학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고 2011년 7월 4일 첫 편집회의를 가졌다.

편집위원에 김경영 조교, 안성배, 허남건, 양재웅, 최천재, 권미현이 임명되고 개괄적인 목차에 따라 각자 임무를 부여받았다. 소식지 제호는 '경영대학 소식' '효원 경영' 'PNU Biz News' 등이 거론되었고, 경영대학의 로고도 만들기로 하였다. 원고는 7월말까지로 하고, 8월중 배포하기로 계획하였다.

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초청간담회

2011년 1월 20일 상과대학은 사범대학에서 실시중인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60여개교의 고교진로진학상담교사와 상남국제회관 에서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신설된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을 소개하고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석한 진학상담교사들은 단과대학 차원의 설명회가 처음이라며 신생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의 특성을 알게 되어 우수학생의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상대동문회

2010년 11월 21일, 헤림갈비에서 상대동문회가 열렸다. 지난 3~4년간 동문의 모임이 적조했으나 이번에 상대동문회를 재흥할 목적으로 60여명의 많은 선후배가 모였다. 이상직(경영63) 회장은 "상대동문회장을 맡을 동문이 없어 본의 아니게 장기집권 형태가 되면서 침체되었는데 이번에 김보두(무역70)동문이 상대동문회를 맡아 준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앞으로 김보

두 회장과 70학번이 중심이 되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인사가 있었고, 김보두 신임회장은 "능력은 부족하나 여러 동문들의 지원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취임사가 있었다. 김유일 경영대학장은 "대학의 발전은 동문의 지원에 좌우된다. 여러 동문들이 힘을 합쳐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모교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과 박종익(경영62)고문은 그동안의 동문회 침체를 극복하고 모든 동문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해보자."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동문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상대동문회장 초청만찬회

상대 동창회장이 2011년 3월 14일 '다미일식'에서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의 보직자를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다. 참석자는 김보두 회장, 부회장, 총무 등과 대학에서는 김유일 황규선 학장, 홍태호 김호범 부학장, 하용수 무역학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문회 회장단과 대학보직자는 대학과 동문회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상과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

2011년 03월 22일 저녁 7시 허심청에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동문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김보두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으며, 총동문회장의 취임 축하패 전달, 전직 이상직 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 2명의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 2부 여흥시간에는 바다새, 황원태씨등 가수가 출연하여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 날 180여명의 동문 및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상대동문회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개교 기념 홈커밍 등반대회



2011년 05월 15일 금정산에서 부산대학교 개교 기념 홈커밍 등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상대동문회에서는 동문 및 가족 60여명이 참석하여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으며, 단체 참가상 2위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또한 상대동문회의 오렌지색 단체 조끼는 수많은 타 동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정화활동

2011년 06월 18일 해운대 해수욕장 정화 활동이 개최되었다. 이 날 상대동문회에서는 동문 및 가족 20여명이 참석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봉사라는 뜻깊은 활동을 함과 동시에 시원한 바닷바람에 가족, 동문과의 흥겨운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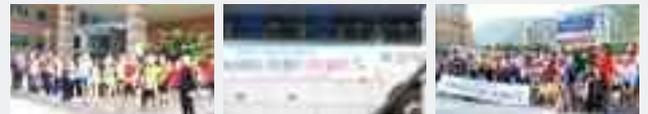
제8회 '자랑스런 부산대인' 정철길, 이재술 선정

2011년 5월 13일 제 8회 '자랑스런 부산대인'에 정철길(경영 73학번), 이재술(경영 77학번)씨가 선정되었다. 현재 SK C&C(주) 대표이사로 있는 정철길씨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총괄대표로 있는 이재술씨는 사회·경제계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학교 이름을 빛낸 점을 인정받아 '자랑스런 부산대인'으로 선정되었다.

MBA 한마음체육대회

2010년 10월 2일, 대운동장에서 MBA 가족이 참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참가자가 200여명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준비체조가 끝난 다음 원장의 제안으로 트랙을 3바퀴 돌기로 하여 많은 원우들이 참가하였으나 완주는 50%미만이었고 송미란 원우회장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같은 속도로 달려 다른 원우들의 부러움을 샀다. 축구 농구 족구 등의 구기종목에서 열기가 고조되었으며, 운동경기가 끝난 다음의 자리가 더욱 활기찼다.

3개 캠퍼스 이어달리기



밀양캠퍼스-양산캠퍼스-장전동캠퍼스의 3개 캠퍼스를 이어달리는 행사(캠이달)가 2010년 10월 30일에 있었는데 6회째이다. 처음 시작은 교수마라톤클럽에서 시작하였으나 2회 때부터는 경영대학원의 미라클(미치도록 마라톤과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클럽)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의 출범을 기념하는 대회로 경영대학원 미라클에서 행사를 관장하고 경영대 학생을 비롯한 부산대학의 학부생, 효원마라톤클럽(부산대 동문의 마라톤 클럽), 시내와 양산의 관심이 있는 마라톤 클럽의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전구간 61km를 완주한 주자가 5명이나 되었다. 행사 후 저녁식사 때 참가한 중국유학생을 격려해 주며 자매결연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MBA 일일호프와 장학금 전달

MBA총동창회는 2010년 12월 일9 효원 굿플러스 지

AMP

하 식당에서 일일호프 행사를 가졌다. 오랜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기별로 소식을 전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판매된 티켓을 구한 많은 학부생들이 참석해 경영대학원 원우와 졸업한 선배들과 대화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으로 쓰기로 하고, 2010년 12월 24일 손인 MBA-총동문회장이 발전기금에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납입하였다.

계약학과 졸업식과 입학식

경영대학원의 계약학과인 테크노-MBA와 삼성테크노-MBA 3기의 합동 졸업식이 2011년 2월 23일 상남회관에서 있었다. 테크노-MBA는 입학생 11명 모두 졸업하였으며, 삼성테크노-MBA는 23명중 21명이 졸업하였다. 5기 입학식은 2011년 3월 2일 상남회관에 있었으며 테크노-MBA 9명, 삼성테크노-MBA 22명이 입학하였다.

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

2011학년도 경영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011년 2월 9일 본 관대회의실에서 있었고 입학식은 2011년 3월 2일 농심호텔에서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은 부원장의 주도하에 수강신청 수업 성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입학식은 공식행사가 끝난 후 원우회에서 원우활동에 대한 설명과 MBA의 강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입학생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원우회 참여를 당부하였다.

AMP 최고경영자과정 제58기 소식

2010년 09월 01일 상남국제회관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제58기 (26명)에 대한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10년 09월 10일 경주에서 제58기 원우들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10년 10월 07일 해운대 파라다



이스 호텔에서 원우들의 부부합동 강연회가 열렸다. 2010년 10월 21일 온천장 호텔 농심에서 상과대학 교수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2010년 12월 02일 국내 저명인사 초청특강이라 하여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정운찬 前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강연을 열었다.

AMP 최고경영자과정 제59기 소식



개최되었다. 2011년 03월 11일 거제도 삼성중공업에서 산업시찰 및 워크숍을 가졌다. 2011년 4월 11일 온천장 호텔 농심에서 차민수 초청강사(SBS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를 모시고 경영대학 교수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2011년 05월 12일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문재인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초청하여 제59기 원우들의 부부합동 강연회가 열렸다. 2011년 06월 03일 국내저명인사 초청특강이라 하여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국제경영교육인증을 추진하면서

교수 최 중 서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간단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특징지어진다. 설립원년을 맞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국내외의 현실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경영대학의 전신인 상과대학은 1948년에 설립된 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경분야를 대표하는 명문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전통과 명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부산대학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위상은 결코 과거와 같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경영·경제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경영대학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은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의 역사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을 이루는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상과대학을 구성하던 경영학부와 경제학부는 각기 일련의 구조조정을 거쳐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이 재출범하게 되었다. 경영대학은 출범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교육의 메카로 재탄생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행보에 착수하였다.

경영학은 법학, 공학, 의학과 더불어 대표적 응용학문 분야의 하나라는 특징을 지니며 전공학도들은 대부분 졸업과 더불어 경영현장에 투입되어 국가,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경제의 최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대학의 교육은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에 못지않게 실제 경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능력의 배양에도 초점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경영학은 본질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부가가치의 확대재생산을 지향하는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에서의 경영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영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및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배양하기에 적절하도록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영교육인증제도는 경영대학의 프로그램과 제반활동이 적절한 질적 수준과 합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국내경영대학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AACSB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International)와 유럽의 EQUIS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의 양대 기관에서 세계 각국의 경영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적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경영교육인증기관 중 EQUIS는 1998년부터 인증업무를 시작하여 2011년 현재 38개국의 130개교에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하여, AACSB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수는 2011년 7월 현재 41개국의 633개교에 달하여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특히 AACSB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였거나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수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경영대학 중에서는 2011년 7월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세종대의 9개교가 인증자격을 이미 획득한 상태이고 전남대, 경북대, 부경대,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인하대, 숭실대, 울산과기대, 솔브리지대, 한양대(ERICA 분교)가 인증자격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고려

대 경영대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AACSB와 EQUIS의 양대 기관의 인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또 연세대 경영대학은 국내 최초로 KABEA와 AACSB의 인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각종 매체를 통한 대학의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국내외 경영교육인증자격의 획득은 국내 경영대학들 사이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대학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금의 추세를 미루어 볼 때, 향후 인증을 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에는 대외적으로 명시적 차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11년 3월 대학출범과 더불어 AACSB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국내 선행대학의 사례 및 신청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고 2011년 7월 22일 회원자격을 신청하여 7월 28일자로 AACSB로부터 자격취득을 통보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그간 미루어 왔던 KABEA 인증 심사도 7월에 신청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AACSB 회원자격의 취득은 AACSB 인증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이를 통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도 2011년 8월 현재 국내 24개 AACSB 회원학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최종적인 인증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심사, 기준달성계획수립, 자기평가 보고서의 제출, 실사단방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인 인증을 받기까지는 짧으면 5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학의 행보는 국내 주요 경영대학 중에서도 뒤쳐진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오래전에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재심사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수도권의 주요대학에 비해서는 한 세대의 시차를 두고 쫓아가는 형편이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AACSB 인증획득을 위한 노력의 개시가 때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만 하는 힘든 과제이긴 하나 이러한 노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인증의 획득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교무, 학사, 행정업무가 실질과 형식면에 있어서 글로벌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인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AACSB에서는 인증자격의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21개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미션수립, 지적공헌, 학생수준, 지속적 개선목표, 재정전략, 학생모집, 학사관리, 직원확보, 교원확보, 교원자질, 교원관리 및 지원, 교직원의 총체적 교육책임, 교원의 개별적 교육책임, 학생의 교육책임, 교과과정관리, 학부과정의 학습목표, 학부과정의 교육수준, 석사과정의 학습목표, 전문석사과정의 학습목표, 석사과정의 교육수준, 박사과정의 학습목표 등이 그것이다.

상술한 21개의 기준들은 학부과정, 석·박사과정, 전문대학원 등으로 편성되는 경영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시스템의 제반 분야에 걸쳐 국제적 수준의 질적 요건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대학이 배출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소정의 국제적 수준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AACSB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전 세계의 주요 경영대학들은 모두가 이러한 공통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AACSB의 정량적, 정성적 최저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할만한 품질의 경영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정보는 AACSB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됨으로써 국제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경쟁의 압력은 당해 기관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교육목표의 수립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불가결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때로는 임기응변적이고 구태의연하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경영대학의 체질과 면모를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혁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대학 전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 및 일정 부분의 희생과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제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동안 허용되어 왔던 학사, 행정업무의 재량의 폭은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다. 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암묵적으로 누려왔던 평판과 위상이 냉엄한 재평가와 엄중한 비교의 잣대에 오를 수도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경영대학의 운영 실태가 국제적으로 공개, 노출됨으로써 대외적으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적으로 변화하고 세계화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역군을 양성하는 책무를 담당해야 할 경영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 AACSB 인증의 추진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를 갖는다.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경영대학의 각 구성원은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경영대학이 장기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교수 최 종 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한지 66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질곡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 다른 나라가 1백년 이상 걸린 산업화를 겨우 40년 만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수 년 전에 벌써 일본 소니사가 자존심을 버리고 '삼성을 배우자'고 하고, 현대 자동차는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할 만큼 산업기술력을 주목받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청년실업, 저출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는 중앙과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확대시켜 우수인재의 탈 부산 현상 가속화, 지역 대학의 인프라 낙후에 따른 침체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1인당 GDP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의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우리 모두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모경제 효과가 거의 끝나고, 오히려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단핵중심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다해 국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총합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능하는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출발점은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기업을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해 변화를 선도해야 하며, 보유역량을 나눔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때 진정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다핵국가를 이루어 1인당 GDP 4만 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기업조직의 변화속도를 100마일로 볼 때 전문가 조직은 90마일, 미국 정부의 규제는 40마일, 교육은 10마일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대학도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은 그동안 국내 유수의 상경계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왔다. 증권시장 시가 총액 상위기업의 임원만 하더라도 전국 5위 이내에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그동안 우리가 쏟아왔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Glocalization시대의 중심대학을 지향하고자 기존의 상과대학을 국제통상대학과 경영대학으로 분리하는 결단을 내렸으며, 또한 현재 경영대학원을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며, 실질적인 지역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강화를 위해 AACSB(국제경영교육인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과거 수준 위상을 일시에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조만간 우리 대학을 Glocalization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중핵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Glocalization 시대를 선도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지향하는 핵심이념은 개방화이다.

우선, 학문 간의 장벽을 없애는 전공 문호 개방을 통해 타 전공 학생들이 실용성이 높은 경영학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현상의 변화에 공동연구를 통한 학제적 성과 창출과 같은 학문의 개방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지역사회 및 경제현장에 대한 개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경영대학원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추적인 경영인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지역 기업과의 소통강화 및 교육과정의 반영 등으로 현장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과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대학과 기업이 공유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대학발전에 기업들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제적 개방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부산대 경영대학에 부합하는 대학 국제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받아들인 유학생, 이민자들의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바탕으로 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대학도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수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親韓派 나아가 親 釜山派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전 세계에서 부산대 경영대학의 동문으로 활동하는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중앙집권적인 통제형 사회구조로부터, 지역사회 및 주민과 보다 밀착된 분권형 사회구조로 이행되어 지역 간 창조적 경쟁의 수평적 네트워크형 사회로 전환 중이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내부적 혁신활동도 대학본부를 비롯한 동문회, 지역사회,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회문제들은 그 출발점과 종착점이 대학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절박함과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변화의 중심이 되고자 할 때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걱정경영, 경영자가 나서야



교수 조 영 복(사회적 기업연구 원장)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된 사회적기업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현재 1,500여개가 된다. 분야도 다양하여 교육, 의료, 환경, 문화는 물론이고 로컬푸드, 재활용, 에너지 등 새롭고 신선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0여년의 사회적기업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경우, 6만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며, 등록제의 사회적기업인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가 5,000여개나 된다. 부산에도 이미 100여개가 탄생할 정도로 그 성장과 파급효과는 빠르고 크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일반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사회적기업은 인권과 안전, 환경과 건강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가난과 차별,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줄이자는 선의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와 비정부 비영리기구가 추구해온 공공의 안녕과 복지라는 이름의 '좋은 일'을 '기업의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최소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기업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또 다른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남기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경제적이고 윤리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윈윈의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뿌리 깊은 가난이 그렇고 다가올 고령화, 실업이 그렇고 늘어나는 이산화탄소와 환경파괴가 그렇다. 크게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 작게는 지역의 재개발, 재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사람의 범죄 문제에서 많은 사람의 일자리창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의 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곳은 없다.

사회적기업은 좋은 것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이 하는 '좋은 일'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출산과 육아 휴가의 부담을 가지면서도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고용하는 일, 생산성이 낮아져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친환경농법을 사용하는 일, 제품이 단가가 높아져 매출이 줄어든 것임을 알면서도 재활용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을 써야만 하는 일, 이런 좋은 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속된 말로 '야 이 바보야! 그걸 누가 모르

나?' 이 말이다. '착한 일'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을 '제대로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좋은 것은 모든 고양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고양이는 찾기 어렵다. '착한 일'을 위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일까? 하고 많은 '착한 일' 가운데 나의 능력과 여건에 적합한 바로 그 '착한 일'을 찾고, '착한 일'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구상하고, 돈과 사람을 모으며, 그들을 리더하고 동기부여하며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기업과 경영자들이다. 기업과 경영자가 매일 매일 씨름하고 즐기는 바로 그 '제대로 하는' 일이 '착한 일'에도 필요하다.

최첨단 경영기법과 기술이 아니라도 좋다. 사소한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편화된 기술, 경영기법, 이른바 걱정경영이면 충분하다.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선이나 자선, 기부나 배려가 아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과 경영자가 일상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이 사회적기업에겐 필요하다.

사업이 시작할 밑천과 같이 물건을 만들어줄 종업원, 물건을 사줄 충성스러운 고객과 호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것도 사회적기업에겐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 모든 구슬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경영기술이 없다면 보배로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보배는 기업과 경영자의 호주머니 안에 동전과 같이 흔하기만 하다. 기업과 경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적기업을 위해 기부해야 하는 이유다.

프로보노, 이는 자신의 재능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21세기의 기부는 재산을 가진 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경영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기업, 그리고 경영자! 당신들의 경영기술이 필요한 곳을 찾아 프로보노로 나서라! 최첨단이 아니어도 좋다. 세계적이 아니어도 좋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른 그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라도 사회적기업에겐 충분하다. 걱정경영! 사회적기업에겐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사회적기업을 아시나요?

Q 사회적기업이란?

A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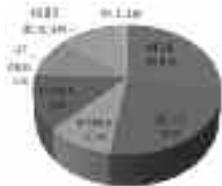
한마디로 사회적기업이란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Q 사회적기업은 언제 신청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되나요?

A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증 신청은 1년에 총4회(3,5,8,10월)하며,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들을 접수하면 권역별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형식적인 요건 심사 후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사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게 됩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으로 역할분담이 논의 중이며, 절차상 일부 변경가능함)

Q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 인가요?

A 2011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532개입니다. 소재지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강원권과 경인권이 각각 28.2%, 24.2%인 것을 제외하면,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나머지 권역들이 모두 9~13% 내외로 비교적 권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에는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있나요?

A 사회적기업들의 업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범주화하여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관광·운동, 보육,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지원, 기타의 9개 업종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업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갑, 휴지 및 카트리지, 천연비누 등 소모품 생산을 비롯하여 도시락, 쿠키, 김치, 햄 등의 식품 제조, 쓰레기 봉투, 상자 제조, 의류 제작,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로컬푸드 사업, 인쇄 출판업, 택배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사회적기업은 정부 대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다양한 지원책, 예를 들면 전문인력 지원(2~3명), 시설비 등 지원 용자,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세계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으로서 정부·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이나 최근 지자체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에 지침에 나와 있는 지원 인력의 수 한도 내에서 지침에 정해진 기간(1~2년) 동안에 최저 임금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지향적 경영학도가 되자.



부교수 최수형

그는 12세가 되던 1976년 말레이시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방학 때도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의사인 아버지, 사업가인 어머니를 둔 그에게도 비행기 티켓은 너무 비쌌다. 거의 매일 런던 히스로 공항에 나가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향수를 달궜다. 그 무렵 영국의 한 '저비용 항공사(서비스를 최소로 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낮은 요금을 받는 항공사)'가 런던~뉴욕 노선을 기존 항공사 요금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운항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짐했다. “누구든, 어디든 값싸게 비행기로 다니게 해주는 항공사를 말레이시아에 세워야지...”

그의 이름은 토니 페르난데스(Tony Fernandes). 아시아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 Air Asia의 회장이다. 12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멀리 이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유학생생활을 하던 그가 가진 막연했던 꿈이 오늘의 그를 만들어 준 것이다. 경영학과 87학번인 나는 김유일 학장님께서 경영대학 출범에 맞추어 경영대학 소식지를 발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해줄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을 읽을 경영학과 제자들, 아니 나는 항상 강의할 때 제자들이라기보다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으니 경영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목표지향적경영학도”가 되자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한 두 개씩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아직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서 꼭 사업가도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부끄럽지만 사실 교수가 되고 싶은 적은 한번도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고 싶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년 나는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고, 2학년부턴 경영학의 세계로 뛰어 들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기업과 비즈니스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들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영학과 선배님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금 우리 후배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황금과 같은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으리라. 젊음은 젊을 때 밖에 느낄 수 없는 특권이며, 나 또한 불혹을 넘어선 나이에 서서 젊은 후배들을 보면 참으로 부럽고 희망적으로 보인다. 내가 너희들 나이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다시 너희들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를 깨끗하게 씻고 새출발 할 수 있을텐데..같은 생각을 가끔 해

보곤 한다. 나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경영학이 과연 방대하고 융합적인 학문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경영학과 후배들도 경영학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은 작고하신 서병인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명예교수이신 정찬근, 오종석, 김광수, 임석현, 정순태, 허화 교수님들의 주옥같은 명강의를 들으며 경영학을 공부하였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수가 되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한 발 한 발 정진하였다. 배고프고 항상 부족했던 10여 년의 시간강사 생활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모교에 교수가 되고 작년 영광스럽게도 내가 공부하던 경영학과 교수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어색했던 게 사실이다. 쉽게 인사드리기도 어려웠던 하늘같은 은사님들과 함께 교수회의에 처음 참석했을 때의 벽찬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물론 부교수가 된 지금도 은사님들이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항상 따뜻한 미소로 동료교수로 인정해 주시는 경영학과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학기 초 학과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내가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각자 꿈을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목표지향적이 되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설정하자. Plan-Do-See가 경영의 기본이다 등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경영학과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진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Getting better all the time 할 수 있길 바란다. 한 때 베스트셀러 중에 10대에 해야 될 일, 20대에 해야 될 일..시리즈가 있었다. 우리 후배들은 20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고 과연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매일 매일 점검한다면 30대가 되었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40대로서 하고 싶은 일이 대단히 많이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지만 내 꿈은 여기까지가 아니다. 모교에서 받은 사랑과 그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향해서 나는 매일 매일 노력하고 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말했듯이 “나는 새벽이 오면 가슴이 벅차다. 새로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라고 했듯이, 우리 후배들도 새벽이 기다려지고 내일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 같은 흥분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소주 한 잔 합시다

교수 김 종 관

부산대학교와 함께한 30여 년의 세월이 나의 삶이자 나의 인생이다. 나는 현실도 미래도 읽어내지 못하면서 어느 날 기계처럼 입시에 포장되어 대학생이 되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눈을 피해 매일같이 책 한 권씩 읽고 자며 자만하던 한 어리석은 영혼이 객관적 자아와 주관적 자아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 속으로 내팽개쳐졌다. 나의 첫 인생은 이렇게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시작되었다.

전경들의 검문과 최루탄을 헤집고 캠퍼스에 들어서서 미팅과 저녁 술자리를 약속하며 취직을 위한 학점 따먹기에 청춘을 던졌다. 이데올로기도 순수함도 한 자리의 논제거리에 머물렀다. 젊음의 솟구치는 열정을 어느 한곳에 쏟아 붓기에는 혼란도 유혹도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길을 물을 곳도 진실을 찾아줄 곳도 없이 그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내 안의 진실이나 내 밖의 진실이 하나임을 찾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학시절 절없던 영혼을 추스르고 미래를 찾아 나선 곳이 대학원이었다. 어린 시절 막연히 교육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내가 아버지의 강요로 경영학과에 진학하며 한때 꿈을 잊었다. 이데올로기에 눈 뜬 친구들과 독서 서클을 운영하며 민족주의와 세상 바로보기를 시도하던 나에게 현실의 양면성을 가르쳐 주었던 곳은 서클과 동문회였다. 내가 경영학과 교수가 되는 데 충분한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경영학은 실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서클과 동문회 등은 개인밖에 몰랐던 나에게 집단과 조직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었고 리더십을 배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대학원에서 인사·조직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 시절 하루 18시간씩 8개월간의 공부도, 설악동에서 대청봉을 거쳐 백담사로 8시간 만에 완주하던 지구력도 나를 크게 성숙시켜 주었다.

한 미성숙한 인격체가 대학원을 통해 성숙해 갔다. 은사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은 변화와 경험을 지식으로 바꾸어 갔다. 형 같은 선생으로,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정교사처럼 후배들을 제자라고 지도하며 멘토했다. 때론 우쭐대고 때론 같이 부대끼며 열정적인 선생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 어느 날 정말 힘겹게, 정말 운 좋게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교수가 된 지 어느덧 15년 째,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나에게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역시 인생의 전부다.

대학 시절 나에게 마이티 게임을 전수해 주었던 78학번 마이티 프렌드 김성식, 박명준, 조서현, 엄태현, 이지승 선배. 술자리 매너를 가르쳐 주었던 79학번 전종영, 이지행, 김승민 선배. 경제학과였지만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처럼 인생을 고민해 주었던 정태환 선배, 2분 만에 중급 회계시험 답지를 제출하며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던 77학번 모 선배, 늘 술을 못 사서 취직하면 두 배로 갚겠다며 여동생 적금을 가져와 2박 3일을 술 샀던 당신을 잊을 순 없다. 길은 달랐지만 정독실에서 힘겨운 청춘을 함께 고민했던 용하, 성제, 성률이, 강준이, 남수. 학점에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영대야 나는 항상 당신들이 보고 싶다.

어느 늦가을 해운대 바닷가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젊음을 과신하며 같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친구 같은 89, 90학번 제자들 상조, 기택이, 재현이, 용창이... 너희들 어디서 뭐하니? 정말 보고 싶구나. 교수가 아니라 동문으로 만나 옛이야기 하며 소주 한 잔 나누고 싶다.

이제 만나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세상의 변화도, 미래의 트렌드도 “성공에는 공짜 없다”는 세상의 지혜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실패도, 위기도, 실수도 집중하며 침착하게 대처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배움의 기술을 우리 함께 나눠 갖고 싶다.

같이 공부하던 낯은 강의실, 여유 없이 삭막해진 캠퍼스를 되돌아보며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와 후배들에게도 이제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자부심을 느끼며 공부했던 경영대학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 대학의 앞날을 함께 멋지게 설계해 보고 싶다.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밖에 우리 대학을 못 키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상과대학에서 경영대학으로 독립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후배들이 진정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모교의 발전은 후배 지원으로 시작됩니다.

교수 김 유 일(경영대학장)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9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상과대학에서 분리 설립되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은 국내의 상위권 대학을 넘어서 세계 속의 경영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5년에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영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는 해당대학이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교육을 수행하는지를 교수진, 교과과정, 교육철학과 내용, 시설 등 각 부문에 대하여 5~6년에 걸쳐 엄격히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수도권 8개 대학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경북대 전남대는 4~5년전부터 추진하여 금년 또는 내년에 획득할 예정입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중견간부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수도권 10여개 대학, 지방의 전남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영남권의 경영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은 법학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재원의 부족으로 우리 경영학부는 교수진과 교육시설의 확충이 부진했으나, 2010년 경영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수의 수가 28명에서 37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전임교수의 강의비율과 강의효율을 향상시켰으며, 글로벌화를 위한 전공과목의 영어강의 비율도 3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건물도 내년 말이면 현 상학관을 모두 사용하여 지금보다는 현저히 개선됩니다.

지금 우리 경영대학에 주어진 과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국내의 중요기업이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 우수학생들의 대학진학 경향이 수도권 지향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면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가 된다는 비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조

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교육인증의 획득, 해외기업과의 인턴 협약, 해외 유명대학과의 학생교류협약 등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어학이 일정한 수준에 오른 학생에게 2~3학년 중의 한 학기동안 우리 대학이 협약한 해외유명대학에 유학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대학내의 면학분위기가 일신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 글로벌기업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의 진학생과 학부모가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내려면 인재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준비하여야 하고 동시에 재정적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모교가 발전하려면 우수한 연구실적, 우수한 신입생, 재학생의 노력과 취업 등 많은 요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선 재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재학생 1,000여명 중 일 년에 30명 정도 해외유학에 보내봅시다.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억5천만 원입니다. 선배님들이 십시일반 도우시면 됩니다.

경영대학에서 '경영 1인1계좌 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 1인1계좌 갖기는 월 1만원씩 일정기간동안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방식입니다. 출연한 기부금은 연말정산으로 세금공제의 혜택도 받습니다. 20개 기수가 기수별로 60계좌를 분담한다면 1,200계좌로 연간 1억 4,400만원으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동문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동문은 좀 번거롭지만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과 동문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소기의 목표가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INTERVIEW

허범도 선배님 인터뷰_현, 부산광역시 정무 특보

학 력

- 부산경남고 졸업('68)
- 부산대학교 상대 경영학과 졸업('73)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76)
- 숭실대학교대학원 국제경영학 졸업 ('04, 박사)

주요경력

- 1975년 제1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79년 상공부 사무관, 1987년 미주통상과장
 - 1985년 국무총리 제1행정조정실 국무회의담당관
 - 1988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아주담당관
 - 1991년 대통령경제비서실 SOC기획단 과장
- 중소기업청
 - 1996년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 2001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 1997년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산업2국장·정책국장·경영지원국장·국방대학원(2000)
 - 2003년 중소기업청 차장
- 산업자원부
 - 2004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2005~2006년 산업자원부 차관보
 - 2006~200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부산광역시
 - 2010년 부산광역시 정무특보(현)

저 서

‘중소기업발전론’, ‘기업 경영지침서 TPM법칙’, ‘자연을 느끼며 삶을 생각하며’

2011년 8월 4일 목요일 아침,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청으로 향하였다. 1973년 본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후 정부 각처에서 일을 하시던 부산광역시 정무특보로 근무하고 계시는 허범도 선배님을 뵙기 위해서다. 며칠 전 본지에 실을 글을 위해 허범도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찾아뵙게 된 것이다! 대 선배님을 뵙다고 생각이 하니 긴장이 되었지만 시청에 도착하여 막상 선배님을 뵙고 나니 워낙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선배님께서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경영대학 소식지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배님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현재 우리 후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쭙어보았다.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가 시청을 떠날때에도 선배님께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며 밝은 모습으로 배웅해주셨다.

제 1부 허범도 선배님의 학창시절

Q 허범도 선배님의 입학 당시 상과대학의 모습은 어떠했었고, 선배님의 학창시절은 어떠하셨나요?

A 당시 부산대학교 캠퍼스는 지금의 넓은 캠퍼스와는 달리 현재의 본관부근이 전부였을만큼 작은 규모의 캠퍼스였어. 공강시간이 되면 그 당시 거의 유일한 여가활동인 당구를 즐겨치곤했어.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산성에 가서 막걸리도 한잔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또 산성마을에서 통학하는 친구도 있어서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 같이 일도 도와주고 막걸리도 얻어 마셨던 향기로운 기억도 있어. (웃음) (그 시절 상과대학을 설명하자면) 1969년 입학 당시 상과대학의 인원은 경영학과 40명, 경제학과 30명, 무역학과 20명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당시 부산대 상과대학은 서울대를 못 간 학생들이 입학할 정도로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고 국립대라서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사립대보다 학비도 약 3배 정도 저렴했던 이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대 상대에 입학을 했었어. 그리고 재학생, 삼수생도 많았기 때문에 연령층도 다양했었지.(앞서 언급했듯이) 그때는 정원이 4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어서 학생들 개개인간에도 매우 가까이 지냈어. 그 안에서도 취미 생활이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활동했었는데, 우선 '도서관파'라는 모임이 있었어. 당시 회계학과가 경영학과에 포함되어 있었고, CPA(공인회계사 고시)의 영향력이 크던 시절이어서 CPA를 준비하느라 도서관에 살다시피하며 공부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도서관파라고 불렀어. 두 번째로 바둑을 좋아해서 모임 '기원파'라는 게 있었어. 지금은 컴퓨터 게임 등 즐길거리가 많지만 그 시절에는 바둑이나 장기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있었지. 세 번째는 내가(허범도 선배님) 소속된 '당구파'야. 대학시절 없으면 섭섭한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무지개문(현 구정문) 앞에서 자주 당구를 쳤는데, 항상 '한 시간만 치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치다보면 두 세 시간이 훌쩍 지나고 수업도 빼먹기 일쑤였었지. (웃음) 네 번째는 '데이트파'라 하여 대학생의 로망인 데이트와 미팅 소개팅을 주로 하던 모임이 있었어. 이 데이트파 친구들이 지인들의 소개팅,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었어. 다섯 번째는 '스포츠학파'. 반에 몇 명은 꼭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듯 40명이라는 적은 인원임에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모여 같이 땀을 흘리곤 했었어. 그리고 지금은 없는 '루머회'라고 하는 교양 서클이 있었어. 고아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이었어. 때로는 거제도 같은 곳으로 여행 겸 봉사활동을 떠나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춤추고 기타 치면서 흥겹게 놀기도 했었던 뜻깊은 모임이었던 걸로 기억해.

Q 선배님께서 활동하신 동아리나 클럽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임이 있다면 어떤 활동인지요?

A ‘백조동인’(경영학과 서클). 동인지에 나오는 백조가 아니라 당시에 팔던 가격이 싼 담배(약20원) ‘백조’에서 이름을 딴 모임이야. 당시에는 ‘신탄지’라는 고급담배가 유행이었어. 어느 날은 내가 학교에 가다가 돈이 없어서 ‘백조’를 샀어. 그런데, 항상 ‘신탄지’를 피우던 내 친구가 웬일인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백조’를 사왔고 그리고 다른 한 친구도 ‘백조’를 구입해 온거야! 그날 바로 셋이서 ‘백조동인’ 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지.(웃음)당시 그 ‘백조동인’ 친구들 중에 현재 부산대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이종호 교수님도 계셨어. 항상 우리 셋이서 데이트나 미팅을 같이 했었지. 당시에는 생활비나 학비마련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는 거의 필수였었어. 월급을 받은 날이면 항상 셋이서 남포동에 가서 10분에 25원 하는 좋은 당구장에 가기도 했었어. (당시 부대앞 10분 8원) 백조동인을 부러워 한 아이들 중 두 명을 뽑아 백조견습생으로 삼았고, 우리 백조동인 인원은 총 5명이 되었었어. 당시 정말 친하고 가깝게 지냈었고, 요즘에도 가끔 만나곤 해.

Q 학창시절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출마 계기나 활동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산대 상대에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었고 공부도 곧잘 해서 그런지 주위에서, 공부하는 학생인 내가 학교 대표를 맡아서 학교와 학생들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며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기를 적극 추천했었어. 그래서 나도 출마를 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당시 부산대의 학생 수는 총 5천 명 이었고 그중에서 상과대학 인원은 한 학년에 90명, 4학년까지 총 360명에 불과했었어. 이에 반해 공대의 학생 수는 1000여명 이상이어서 애초에 타 단과대 후보에 비해 인원부터 상대가 안되었기에 그동안에 상대 출신 학생회장은 없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결국은 당선이 되었어. 우여곡절 끝에 학생회장이 되어서 한 일은 데모였어. 69학번, 학생회장으로 활동 당시 1971년도는 유신집권기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데모하며 경찰과도 많이 싸웠었지. 데모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학교 앞에서 의자와 책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는데 당시 총장이셨던 신기석 총장님께서 데모하는 게 민주주의냐며 크게 꾸짖으셨는데 나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 학생 때는 어른들과 서로 입장차이도 있고 해서 데모도 했는데, 세월이 지나 돌이켜생각해보니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뭐,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활동을 하느라 3,4학년 동안 공부를 못했었고, 졸업 후 입영문제 때문에 서둘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했었어.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2/3가량이 행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고시 준비를 해 온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공부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었지. 그래서 73년 행정대학원 졸업 후 1년 동안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1975년 17회로 행정고시에 합격했어.

제 2부 후배들을 위한 조언

Q 정치적 성향을 띄기보다는 학생을 위하자는 마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여 만들어 가는 형태로 지금의 경영대학 학생회가 만들어 졌으나 생각보다 참여가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끈끈하게 뭉치는 응집력이 없고 학교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쉬운 얘기지만, 대체적으로 국립대학이 응집력이 없는 것 같아.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지방은 오죽하겠어? 연/고대나 한양대 같은 사립대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항상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사회 요직에서 활동을 하는 선배들도 많아서 후배들이

우러러보고 또, 후배들이 존중해주는 만큼 선배들이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줘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연고전과 같은 스포츠 활동, 세미나, 유명인사 강연, Field Trip 등으로 뭉쳐야 하는데, 우리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게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학교의 총장님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학생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때문에 학생들은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기 보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 함께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 힘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후배들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에 대해 학생회가 할 일도 있는데, 비록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사전 조사를 통해 수요를 확실히 파악해서 마시고 노는 단편적인 행사가 아니라 경영대학의 뿌리를 각인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연다든지 혹은 교수님들과 연계하여 직업 활동을 소개해준다든가 하는 여타 활동들로 학생들과 선배들이 직접적으로 소통/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다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만드는 경영대학 소식지나 신입생이 수강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저십 강연 또한 학생과 동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이 있기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

Q 특별히 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조언하신다면?

A 기존의 상과대학 경영학과에서 경영대학으로 분리해서 출범한 것은 MBA나 국제경영인증 사업 등 경영이 중요해지는 현 시대상황에서 매우 훌륭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앞으로도 또 수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빨리 적응하는 게 급선무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기업경영, 시장경영, 조직경영 등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경영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대학총장, 대통령등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 또한 경영마인드를 갖추는 것은 필요충분조건 인 것 같아. 학교는 변화에 대응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도 그에 맞춰 따라주고 개인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하지.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잘해왔고 잘하고 있지만 변화될 미래의 모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해야하며 그에 맞추어 앞으로 향해야 할 것 같아.

Q 자신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학업에 정진하는 후배들을 위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A 우선 경영대학이 출범하고 많은 것이 바뀌고 있으므로 앞으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너무 공부를 안해서 문제야. 예를 들어 미국의 하버드, 중국의 칭화대학 같은 경우는 과제가 너무 많아 밤새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시험기간동안에만 고작 1달 공부하고 방학이 되면 2달씩이나 놀아버려.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놀고 즐기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생각해보자. 하루 24시간, 1주일, 한 달 30일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놀고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몇몇 학생들은 생각없이 놀고 즐기는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처럼 보여.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자기가 쓰고 있는 시간을 자각하라는거야. 할 일은 하고 즐길 때는 즐기는 것이 멋진 '참대학생'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 자기 자신이야.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면 학생들 스스로도 변화가 있어야만 해. 비록 처음부터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갔으면 해. 선배들이나 부모님들 학창시절, 사회시절에는 여가활동은 거의 없었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국민총생산 2만 달러, 무역규모 1조원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낸 것이니 우리 후배들도 부모님세대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었으면 해. 그리고 충분히 잘하리라 믿고 있어.



성공을 만드는 리더가 되자

경영(73) 정철길 / SK C&C 대표이사

- 1978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 학사
- 1986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 1998 SK 구조조정본부 구조조정담당 상무
- 2010 SK C&C IT Service사업 총괄 사장
- 2011 現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 2009 정보통신의 날 대통령 표창
- 2011 자랑스런 부대인상 수상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크, 스마트러닝 등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Smart)’란 단어의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스마트의 시대’라 할 만하다.

각종 전자기기들이 유무선 통신과 연결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상황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이나 거리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PC로 실시간 뉴스를 살피고 e메일을 체크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은행 계좌이체나 물건 구입, 위치 검색 등도 손안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언제, 어디서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도 나타났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일정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하는, 기존의 획일적 근무 방식에서 탈피해 집 가까운 곳의 스마트 워킹센터로 출근을 한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유연 근무제(Flexible Time)를 도입한 직장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은 자아실현과 삶의 질 제고, 행복 추구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유통, 일과 삶의 방식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스마트 시대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리와 통제를 통한 ‘합일(合一)의 리더십’보다는 자신의 전문성과 예지력을 바탕으로 주위 여러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 창의성을 묶어 세우는, 관계 중심의 ‘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평적 리더십이 이끌어내는 하모니는 오늘날 혁신기업들의 경영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리더는 지위가 높고 힘있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기게 하는 사람이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일과 싸워 이기게 하는 사람이다.

일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아닌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老子)는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일이지만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했다. 오늘날 진정한 리더의 조건은 바로 노자가 말하는 ‘자승자강(自勝者強)’에서 시작된다.

올림픽 경기에서 뜻하지 않은 총돌로 메달 순위에서 밀려난 선수들이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것도 게임의 목표가 자신과의 싸움에 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 구성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토대로 구성원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또 다른 리더가 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을 월드컵 축구 4강의 반열에 올려 국민적 영웅이 된 히딩크 감독이나 2007년 이후 네 시즌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과 세 시즌 우승의 경이적인 성적을 거둔 프로야구팀 SK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은 무명 선수들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동기부여에 나서 조직의 꿈을 현실로 만든 대표적 리더로 꼽힌다.

리더는 이기적(selfish)이지 않아야 한다. 대신 늘 자신의 조직이 이기는 꿈을 꾸며 출신수범과 겸손 속에 자기존중(self-esteem)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과 조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교육하는 그는, 굳어진 기존 방식(legacy)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드는 혁신적 ‘룰 메이커(Rule Maker)’이기도 하다.

기업에서 강조하는 자율경영과 현장경영도 모든 조직과 현장에 룰 메이커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룰 메이커는 항상 현장 속에서 조직의 역량과 기술, 인적 구조 전반에 걸친 혁신을 꿈꾸고 실행해 간다. 그들이 조직의 상황을 파고 들며 창의적 고민을 담아 만든 룰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차별적 경쟁력을 가진 ‘이기는 조직’이 가능해진다.

많은 이들이 리더가 되기를 꿈꾸면서도 그 길을 향해 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흔히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세 번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기회는 훨씬 더 많이 우리 곁으로 다가 온다. 다만 그 기회의 모습이 백마 탄 왕자처럼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싶을만큼 두렵고 풀어내기 힘든 일의 모습으로 폭풍우처럼 우리 앞에 다가 선다. 폭풍우를 맞아 고개를 돌리고 쉽게 포기하는 순간 기회는 날아가고, 반대로 맞서 이겨낼 때 모든 역경이 바로 기회가 된다. 기회는 넓은 길, 넓은 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 열린다.

준비된 사람, 미래를 보는 혜안을 품고 긍정의 힘을 믿는 리더는 그 어떤 힘겨운 상황도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속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는다.

정답도 없는 난제(難題)는 비록 단숨에 풀 수는 없지만 어려운 만큼 더 많은 것을 이뤄내며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리더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새로운 도전 속에 다져지는 성공에 대한 신념과 용기(courage), 꾸준히 쌓은 경험(experience)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통찰력(insight), 그리고 변화에 대한 예지력(foresight)을 키워 가는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성공으로 이어가는 ‘형질 전환의 연금술사들’에겐 평생 접하게 될 기회의 숫자가 무의미하다. 다른 이들이 쉽게 고개를 돌렸던 모든 순간이 성공의 기회가 된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들의 삶 속에 성공의 기회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리더의 자격은 스펙에 있지 않다. 현장에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두의 성공을 만들어 내는 당신이 바로 리더이자 이 시대의 자산이다.



꿈과 도전의 삶을 살라

경영(77) 이재술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 한국총괄대표

- 1981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1996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1985 증권감독원 특수전문직
- 1992 미국 딜로이트 파견 근무
- 2009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 2004 국무총리 표창장
- 2011 은탑산업훈장
- 2011 자랑스런 부대인상 수상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원고 청탁에 응하고 후배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을 생각하다 보니 지난 시간들이 빛 바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계절마다 변화와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그 시절의 캠퍼스에는 청춘의 고뇌와 희열이 녹아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힘겨워했던 기억들이 즐비하지만 사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계 대학생활은 순수와 열정이 혼재한 시기였습니다. 나름 학업에 열심이었지만 10.26 과 부마사태 등 한국 정치사를 관통한 일대 격변 속에 빈민과 방향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학업과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재학 중 딱 한 번 회계원리 과목에서 D학점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이 때의 성적표를 보며 절치부심 끝에 회계사시험에 합격하게 됐으니, 결국 제 인생에 큰 자극을 준 아 이러니였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 이 땅의 청춘들이 처한 환경 역시 그리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의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스펙 쌓기에 내몰리면서 한 때 젊음의 특권으로 받아들여지던 낭만과 순수, 열정이 실종돼 버렸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눈 앞의 현실에 매몰된 채 정작 소중한 꿈을 잃고 사는 것은, 긴 인생을 놓고 볼 때 득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 진로를 설계하고 자신의 비전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세야말로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가 견지해야 할 좌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되 넓게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변화 흐름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 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권합니다. 열린 가슴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세상과 통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공존과 협력의 토대 위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와 성품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꿈을 품고 나아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5년, 10년 단위로 바뀌어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과거 뉴욕에서 근무하던 시절 지나간 30년과 다가올 30년의 인생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놓고 볼 때 당시 바라고 꿈꾸었던 것들의 대략 90%는 실현됐거나 실현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꿈을 반추하며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야말로 꿈을 실현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은 경영학도로서 같은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후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망에 차서, 다른 누군가는 삶의 무게에 눌린 채 힘겨운 걸음을 옮기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르지 못할 산이 없듯 극복하지 못할 난관 또한 없습니다. 위기에 서 좌초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회로 도약할 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작은 어려움에 주저앉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망과 가능성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눈과 귀를 열고 중소기업에 도전하자!”

김 대 연 / (주)원스텍넷 대표이사(CEO)

- 1985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 2005~2007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장
- 2005~2007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 2011 現 경기벤처기업협회 부회장
- 2004 정보화 유공자 대통령표창
- 2007 벤처기업인 석탑산업훈장 수상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50대 취업자 수가 20대 청년 취업자 수를 능가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고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하는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구직자보다 50대 구직자가 수적으로 많아서 나온 단순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20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 분명하다.

정년 퇴직을 하고서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다 큰 자녀를 위해 칠순도 지난 나이에 택시운전을 하거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 취업을 하는 아버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럴듯한 직장이나 좀 더 쉽고 편한 일을 찾으며 하릴없이 세월만 죽이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동네 슈퍼에서 캐셔를 하는 50~60대 어머니.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다 몇 번씩 낙방하고 결국 돌파구로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를 위해 대형마트 판촉사원으로 나선 어머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픈 현실이다.

전 직원이 200명 조금 안 되는 우리 회사는 매년 2~3차례 대졸 신입직원을 공채로 뽑고 있는데 매회 채용계획에 못 미치는 결과로 1년 내내 상시 채용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청년 실업이 문제라지만 우리 회사는 신입직원 뽑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회사는 매년 20~30% 매출신장과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근무조건과 대우, 복리후생도 대기업 못지않게 좋아지고 있는데 말이다. 회사는 신입직원을 못 뽑아 안달인데 청년실업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언뜻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3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서울 소재 8개 주요 사립대학과 지방 소재 14개 국·사립대의 3~4학년 취업준비생 574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원인으로 ‘일자리가 없어서(19.3%)’보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75.6%)’가 훨씬 높게 나왔다. 또 마음에 드는 일자리로 ‘대기업(71.3%)’을 가장 높게 꼽았고 ‘중소기업(4.6%)’은 찬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대기업 일자리는 12.9%인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77.1%에 달한다. 숫자로만 보면 대업을 선호하는 71.3%의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으로 시선을 돌리면 중소기업과 청년실업자 모두 행복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하루 이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 회사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도 어렵다. 우리 회사는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 좀 더 난이도가 높다는 네트워크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개발자의 자격요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언어 외에도 네트워크 및 통신 지식과 하드웨어 접목 기술도 필요로 한 데 반해,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끼를 가진 청년 구직자를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미 이공계 기피현상은 청년실업 문제만큼 심각하다. 개발업자가 연구실에 틀어박혀 때론 날을 세고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3D 업종으로 전략한 것. 실제로 우리 회사 공채 지원자를 보면 대학에서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회사에서 볼 때도 개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졸업자가 개발만 아니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한다. 다른 직무보다 개발자의 연봉이 높은데도 말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은 이과보다는 문과를 많이 찾아가고, 그나마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해도 골치 아픈 소프트웨어 개발은 꺼려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산관리자 등 비교적 편한 일을 찾는 것 같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지난 6월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소 △중소기업 실무투입이 가능한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취지로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공계 취업 준비생의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대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이공계 미취업자와 우수한 중소기업을 매칭해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실무에 투입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실무에 적합한 개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회사도 이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편하고 쉬운 일에 나까지 끼어 힘들게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회사도 누구나 뛰어들어 힘들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엔 관심 없다. 우리 회사가 잘 할 수 있고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이면 레드오션이라도 뛰어들어 당당히 선두자리를 차지했지만, 힘들게 경쟁해도 제살갓키 밖에 안되는 레드오션은 과감히 포기했다. 이제는 레드오션에서도 블루오션이 될만한 틈새시장을 노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만큼 알려져있진 않지만 우량하고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고,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게 바로 블루오션이다. 대기업만 바라보며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힘들다는 건 핑계다. 모두다 대기업만 선호하면 당연히 일자리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게 이치다.

'작은 고추가 맵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우리 속담이다.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 규모는 작아도 독보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경쟁력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수익률과 인간적이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자신감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더 빨리 더 쉽게 실력을 쌓을 수도 있다. 다양한 업무 경험과 자기계발의 기회도 많다.

경영대학 후배들이여! 이제 블루오션에 도전하기 바란다. 조금만 눈과 귀를 열고 시선을 돌리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위 잘나가는 중소기업이 정말 많다. 이미 중소기업에서 자리 잡고 후배들을 데려오는 선배들도 많다. 대기업만 길이라 믿지 말고 시선을 돌려 기회를 잡길 바란다. 12.9%의 일자리에 71.3%의 청년 구직자가 몰리는 레드오션을 뒤로 하고, 77.1%의 일자리에 4.6%의 청년 구직자가 지원하는 블루오션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산업 친화적 대학, 창의성과 인간성을 중시하는 대학



이 병 길 / (MBA40기) (주)파크랜드 그룹 회장

-1983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2010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1987 태화섬유(주) 대표이사
-1992 파크랜드 그룹 회장
-2011 현 신화물산(주) 대표이사 / 세진어패럴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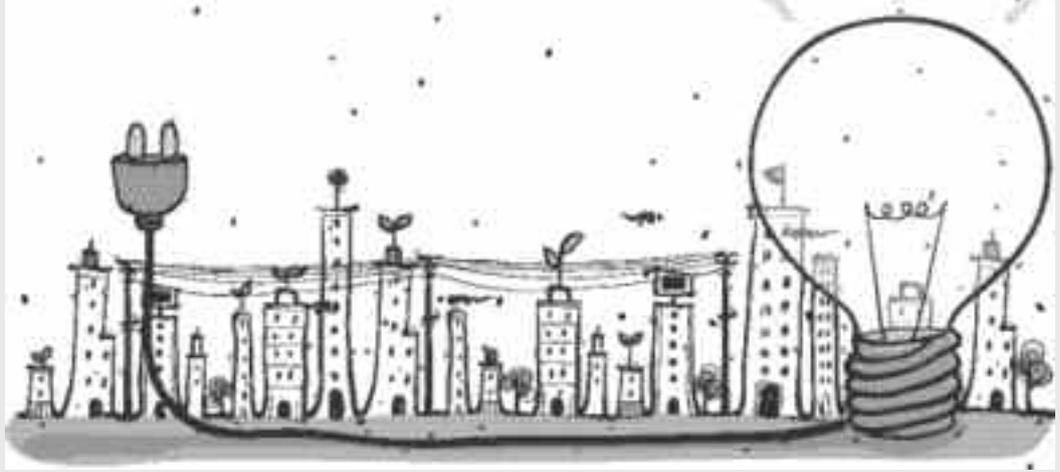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깨달음을 얻으며 새롭게 태어나지만, 어느 순간 저절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을 성장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타인의 사례나 책을 통해 얻어지는 간접적인 경험들이 모두 공부가 되며 이는 평생을 두고 계속 된다.

가정교육 중심으로 유년기를 보낸 후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재 탄생하게 되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는 그치지 않고 계속 된다. 이와 같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기 위한 공부의 3대 터전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은 원만하고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소양과 지식을 쌓는 중요한 과정이며, 대학교육은 특히 그러하다.

미시간 대학에서 8년 간 총장을 지낸 제임스 J. 두데스렛은 그의 저서 「대학혁명」에서 “교육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부(富)가 되는 지식시대에 대학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기회와 대학이 생산하는 지식과 각종 서비스는 개인의 번영과 복지에서부터 기업 경쟁력, 국가안보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대학은 천 년 동안 지식, 지혜, 가치의 생산자 이면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기 동안 대학은 대학 고유의 역할과 접근방식 및 조직 등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매우 느리고 선형적인 확장만을 추구하는 변화를 진행시켜 왔다. 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과거를 지키는데 더 익숙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학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학을 두고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대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육행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기업 경영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학교육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첫째, 보다 산업 친화적인 대학이 되어야 한다. 흔히 이야기 하는 산학연계 강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산업 친화적이라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근본적 교육체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집단은 대학의 교수들로서, 그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지식인으로 양성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들은 너무 이론 중심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실상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당장도 대학교육을 마친 대졸 사원들을 채용하여 현업에 배치해 보면 대학에서 전공한 학문적 지식이 산업현장에서의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당사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어떤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러한 대학과 산업간의 괴리 현상을 늘 안타깝게 생각 한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고 난 후에는 산업체에서 좀더 실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대



학 졸업 후 곧바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 프로그램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곧바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기업에서의 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적·물적 자원의 낭비 없이 사회적·국가적 가치창출이 배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학문적 이론체계를 추구하는 연구분야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마친 청년들의 대부분은 학문 연구 분야가 아니라 사회로 나와 산업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은 이론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실물경제에 가깝도록 재편되어야 하며 교수진들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강화 되어야 한다. 예컨대 본인이 경영하는 대형 의류 직영공장의 경우 선진국 어느 공장 보다 첨단화되고 앞서 가는 공장이다. 전국의 많은 대학에 의류, 패션학과가 있으며 그 교수와 학생들은 당사와 같은 의류 제조공장을 견학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사 공장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충남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자주 견학을 오고 있는데, 오히려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견학방문이 거의 없다. 이것은 산, 학이 너무 격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첨단 공장이 있다는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러다 보니 학문이 실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지 학문으로만 끝나고 말게 되는 것이다. 학(學)이 산(産) 쪽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보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학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학교에는 여러 분야의 많은 전공과목들이 개설 되지만, 실제 어느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전공과 100% 일치하는 분야에서 일하게 될 확률은 매우 적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배운 기초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현업에 접목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 취업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 자기의 전공분야가 아닌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조차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너무나 획일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의 결과라 생각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곧바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진출한 후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유연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이 결여된 탓이다.

셋째, 인간성을 중요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의 '인간(Human Being)'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를 잘 가져야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만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인간성이 형성될 수 없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한 상호작용도 기대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돈이 많거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자공심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상대방은 싫어하기 마련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접근하며 관심을 보임으로써 감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다.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이나 좋은 인간관계 유지에 관해서는 누구나 강조하고 있지만 한 두 번의 단기적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가정교육과 장기간에 걸친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이 해결 될 수 있다. 대학에서 인성 교육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기는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으로 교양과목 정도로만 다루어 지고 있는데,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지식집약 사회가 되면서 사회는 지식을 창출하고 사람들을 교육 시키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지식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제도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중심에 바로 대학이 있다. 개인의 번영과 복지, 기업 경쟁력, 국가의 부(富) 창출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핵심요소로서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강조한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꿈꾸던 대학

입시의 전쟁에 시달리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등학교 시절을 끝마치고 나는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학생 1학년, 말만 들어도 풋풋함이 느껴지고 설렘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나는 신입생이 된다는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대학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꿈을 꾀본다. 나도 대학생이 되기 전 꿈꾸던 대학생활이 있었다. 내가 꿈꾸던 대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였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짜여 나오는 시간표대로 무조건 정해진 과목과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했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대학교는 내가 듣고 싶은 교양과목과 교수님 그리고 시간대도 모두 자신이 직접 짤 수 있으며, 그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듣는다.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있고,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배와 동기도 만나서 인맥을 넓히고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는 것들을 꿈꿔왔다. 하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 여러 좋은 사람들과 취미생활도 즐기는 무한한 자유가 있는 곳이 대학이라 여겼다.

부산대에 입학하고 실제로 대학생이 되어보니 늘 꿈꿔왔던 자유를 난 누릴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처럼 교실에만 박혀 의자에서 엉덩이 한번 제대로 때보지 못하며 듣는 수업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나무와 꽃이 가득한 캠퍼스를 거닐고 수업이 끝나고는 동기들과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친분을 쌓으며, 같이 엠티도 가며 여유를 즐길 수도 있었다. 물론 대학교만 들어가면 공부는 뒷전일줄 알았지만, 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레포트와 시험 대비로 때로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기도 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것도 부모님이나 학원에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의 꿈을 위해 스스로 챙겨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귀찮거나 힘들기 보다는 내가 선택 할 수 있는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나름의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사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오면서 기대감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이 가장 큰 목표 였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 아직 뚜렷한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걱정이었다. 하지만 한 학기 대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한 걱정 보다는 지금의 경영대학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특히, 작년에 상과대학에서 경영대학이 따로 분리되어 출범하면서 우리 11학번부터는 기존의 커리큘럼에서 새롭게 변화된 부분이 많아 기대가 컸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다. 그중에서 글로벌엔터프라이저십 수업은 명사들의 인생 이야기도 들으며 살아가면서 도움을 될 만한 유용한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명사들도 있어 딱딱한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린 분위기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경영대학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담당 교수제인데, 솔직히 신입생 중 대부분이 자신이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한다. 하지만,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할지 잘 모르며, 학생으로서 개인적 친분이 없는 교수님께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일도 선뜻 나서기는 힘든 일이다. 담당교수가 각 학생들에게 정해지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점이나, 상담 받고 싶어 하던 부분을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내가 꿈꾸던 대학생활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활기차고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 대학 시절일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대학 시절을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참 행복하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자유롭게 꿈꾸며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경영학과 201143236

오 초 롱

Winners never quit, and quitters never win!



경영학과 200643157

류 승 훈

글을 시작하며

저는 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류승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경영대학의 소식지에 학생칼럼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칼럼 게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을 때는 평범한 대학생인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복학 이후의 성적상승과 경영 83학번 동기회장학금, AMP55기 장학금의 수여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저의 대학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성공보다는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계속하다가 결국 제가 자신 있고 솔직하게 적을 수 있는 글은 입학이후에 대학생활에서 겪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인생의 원칙과 소소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학생활에서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Winners never quit, and quitters never win!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짧은 문장이 대학생활의 도전과 실패를 통해 익힌 인생의 원칙입니다. 문장이 가지는 의미는 언제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끈기를 가지고 도전을 완수한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그 과정이 인생전체를 승리로 이끌고 간다는 의미이며,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 저에게 항상 각인시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학 초기부터 제 인생의 원칙이 도전과 끈기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래에서 말씀드릴 ‘계기’가 없었다면 일련의 대학생활은 안정추구와 게으름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2007년 8월, 친구의 노트에서 인생의 원칙이 될 문장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국제리더십학생협회 AIESEC 부산대학교의 지부장의 자격으로 터키에서 개최되었던 AIESEC의 세계총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 세미나에 참가해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생각과 터키라는 이국적인 공간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첫 세션이 끝나고 세미나가 진행될수록 설렘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세미나의 모든 세션이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당시 저는 회화정도의 영어수준이 전부였기에 토론이나 발표에서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았고, 심지어 세션 중 강연자가 한명씩 웃긴 이야기를 해보자했던 쉬는 시간에는 손과 발을 써가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아무도 웃기지 못해 얼음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공간 속에서 눈을 뜨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만 느끼면서 모든 것을 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을 들어가지 않은 채 책상정리를 하고 낮잠을 자려던 찰나 우연히 룸메이트의 노트 표지에 새겨진 “Winners never quit, and quitters never win!”이라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순간 자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행사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영어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만하다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지, 상황을 역전시킬만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어떤 결론이 나든 끝까지 가보자’는 의지로 마음을 다잡고 곧바로 세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이후 강연자들에게 다음날 하는 세션의 자료를 미리 받아 공부하면서 의견을 정리하고, 세션 후에 모르는 내용은 함께 참가한 한국의 친구들, 새롭게 사귀 외국 친구들 그리고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기하려던 마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는 날은 늘었지만 그만큼 세션에서 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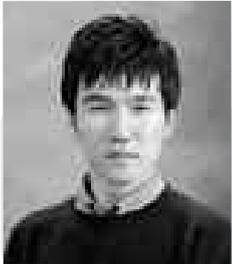
문장이 늘어났고, 세션에서 의견을 더 말할수록 저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외국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날 때에 제가 주장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 나오고, 외국친구들과 자연스레 소통하게 됨을 느끼면서 도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의 원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당시 체득한 ‘포기하지 않음’에 대한 원칙은 저의 대학생활을 완전하게 바꾸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과감하게 도전에 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물 하나하나가 쌓여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2학년 때 맡았던 AIESEC의 지부장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긴장감과 조직을 이끌어 가는 의사결정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발표경험과 프로젝트 진행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1년 반의 관세사 수험생활은 새롭게 접하는 개념과 수많은 활자를 담고 있는 법전들 속에서 주어진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2차 마지막 유예에서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하는 힘든 도전이었지만 툭툭 털고 일어났을 때 장시간의 공부와 수많은 활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도전과 포기하지 않음 그리고 실패의 극복이라는 사이클을 밟아 나가면서 서서히 목표달성이나 성취라는 단어가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학업에서의 성장 그리고 장학금 수여 등 의미 있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터키에서는 참가자의 자격으로 외국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행사를 마쳤지만, 이제는 다른 국가에서 강연자의 자격으로 외국친구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멋진 경쟁을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다면 언젠가는 제 머릿속의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글을 마치며

가끔 학과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에게 1학년 때에 비하면 참 많이 변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고등학교 졸업이후 촌스럽고, 세상물정 모르던 생명체에서 인간의 형상을 갖추어 간다고 놀리면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다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 변화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 삶의 원칙을 고수해온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 근간에는 제가 속해있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항상 있었습니다. 영어공부를 하고자 기회를 찾았을 때에는 학교의 원어수업과 잡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실패를 겪고 다시 도전할 때에는 선배님들께서 수여해주신 장학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즐거울 때 그리고 힘들 때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저 또한 사회에 나간다면 후배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변을 돕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효원인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약하는 경영대학,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경영학도 친구들에게



경영학과 200643154
김성곤

- 교내 동아리 활동(2006~) • 경영학부 학생회장(2007)
- 청년인턴(2009) : 경영학과 사무실
- 근로장학생(2010~2011) • 포스코 산학장학생(2011)

“경영대학 글로벌 챌린지2011”, “산업현장 견학”, “글로벌엔터프라이저 강연”. 언제부턴가 경영대학 건물에 낯선 안내 포스터들이 붙기 시작했다. 대학교를 약 3년 넘게 다니며 학과에서 대부분의 활동들을 해본 나였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공고들이었다. 올해부터 기존 상과대학에서 경영학부 중심으로 경영대학이 신설되면서 학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역량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론 중심적인 전공수업에서 더 나아가 예비 경영인에게 필요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배양하고 이론의 체득과 경영활동의 해안을 갖게 하는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분명, 이것은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분명 자신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지난 학교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러한 기회에 임하면 좋을 지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로는 최대한 교내기관(행정실, 학과사무실, 대외교류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늘 정보를 찾고자 학교 홈페이지나 각종 게시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넓은 인맥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동기, 선배들과의 오가는 대화 속에서 미처 몰랐던 양질의 정보(프로그램, 제도)를 접할 수 있고 남들은 모르는 합격 노하우도 얻을 수 있다. 나는 특히 이런 인맥의 혜택을 많이 보았다. 주위 선배들을 통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기회가 되는 교내의 프로그램(외국인 튜터링, 이러닝 인턴, 직장체험, 학부산학장학생 등)을 알게 되었고 자소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 합격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마냥 두렵기만 하지만 그 선발과정의 세부사항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다른 경쟁자보다 몇 발자국 더 나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교수님과 각 교내 기관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

한 부분을 고민하고 찾아본 후 학교 측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학기동안 학장님, 부학장님과 면담을 몇 차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제공해줄 여력이 충분히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다. 단순히 제공되는 것만 참여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새롭게 구성해서 남들도 함께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창조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이는 결국 학교와 학생간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활동의 기본이 되는 ‘꿈을 가져라’이다. 꿈이란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매일 아침,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당장 1~2년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5~10년이 흐른 뒤부터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난다고 믿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 경영인이었다. 늘 가슴속에 품은 경영인이란 꿈은 자칫 방황할 수도 있는 대학 입학 후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남들보다 2년 가까이 빠른 시점인 3학년에 목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꿈 없이 단순 점수에 맞춰 입학했던 많은 동기들이 현재 방향을 하며 힘든 현실에 점점 타협해가고 있다. 물론 나도 대기업 입사가 아닌 경영인이 꿈이기에 앞으로 계속 자기계발을 통해 앞으로 정진할 것이다. 가끔씩은 쉬고 싶기도, 지칠 때도 있지만 나의 꿈은 계속해서 나를 일으켜주고 걸어 가도록 해준다. 그것이 바로 꿈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분명 지렛대 위에 서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렛대의 용도를 알고 잘 이용만 한다면 자신의 힘의 몇 배가 되는 위력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제자리 맴돌게 될 것이다.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개인의 몫인 것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 학생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학장님과 부학장님, 그리고 각 교내 기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도전적이고 믿음직한 우리 부산대 경영대학 학생들에게도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의 4년을 되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영학과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오려화입니다.

경영대학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발간되는 소식지에 중국인 대표로서 유학생회에 대하여 간단한 글을 한 편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4학년이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상과대학 경영학과~경영대학) 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제 전공인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에 대해 자세히 배웠고, 실무능력을 갖추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원어강의를 통해서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회를 처음 시작하며 어려웠던 일을 추억해보면 경영대학 학생이 너무 많아서 수강신청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또한 유학생을 한명 한명 직접 담당해주는 교수님도 없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대학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많이 만들어 유학생 후배들이 학과 친구, 교수님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은 1학년 때 부산대학교 합창단동아리에 참가 한 것입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MT도 가고 공연도 하며 한국문화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등산도 하고 대학원 선배들과 문화 교류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인도친구랑 룸메이트가 된 적이 있는데 같이 쇼핑도 하고 서로 문화교류도 하면서 글로벌 시대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4년 동안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의 유학생회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간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글로벌화 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도 점점 늘어 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관심으로 유학생들이 힘든 유학 생활을 더 잘 이겨내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영학과 200843268

오려화

끝과 시작의 자락에서



일반대학원 201186115
서해진

저는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본교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 학부에 입학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새 대학원 생활도 한 학기 보냈네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느꼈던 점과 경영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영학이란 기업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를 학습하는 학문입니다. 이를테면, 기업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기업의 제품을 정시에 정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관리하며,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흔히 경영학이 돈을 벌기 위한 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교나 병원 같은 비영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경영학이 필요합니다. 저도 큰 뜻이나 목표 없이 경영학과에 들어온 경우지만 경영학이 전반에 적용되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실무에 관해 배움으로써 취업을 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영학과 출신 학생을 선호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경영학과가 상과대학에 속해있었고 저는 학부생으로 입학해서 경영학과, 회계학과, 금융공학과 중에서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영대학으로 이름도 바뀌고 통합이 되면서 이전에 나뉘어져 있던 학과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다양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교양 수업 외에도 다양한 수업에 참여 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보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영학과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플러스’와 같은 학술적 동아리 외에도 ‘UCDC’와 같은 댄스 동아리, ‘블루밴드’와 같은 밴드 동아리 등 그리고 중앙 동아리에는 더 다양한 동아리가 있으니, 경영학과 동아리 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들을 통해서 인맥을 형성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친구를 사귀고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함께 공부하며, 본인의 취미생활을 형성하는 것도 대학생활을 하는 보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생 때 하지 못해 아쉬웠던 것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해외 유명대학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정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학비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교류를 맺고 있는 해외 대학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톨스-로이스, 독일 프라운호퍼 IFAM·IGB, 미국 UC Berkeley, 캐나다 매니토바대학(Manitoba), 호주 애들레이드대학(Adelaide), 일본 도쿄대학, 중국 푸단 대학 등 32개국 224개 대학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든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나라에 어떤 대학이든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공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 역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 비율은 약 57%에 달했습니다. 학교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등 다양하게 있으며, 학교 장학금뿐만 아니라 외부의 많은 재단에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인산장학금 뿐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 재단, 롯데장학재단, 한국 장학재단 등에서 교외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점이 좋아야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의 기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제가 재학 중인 대학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영학전공으로 입학하여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관리 등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수업을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루 알아야 하는 공통과목들과 함께 본인이 관심이 있는 세부전공 수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며 접할 수 있어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중요하듯이 대학원에서는 대학에서보다 소수로 수업이 운영되고 함께 공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선배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물론 교수님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더 연구해보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의 지난 학교생활을 돌이켜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4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한 학기 한학기가 금방 지나가고 어떤 시점에는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4년이라는 기간이 무의미해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갈수록 더욱 더 대학생의 신분이 되는 순간부터 취업이라는 과제를 안고 부담감을 느껴야 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지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대학 시절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방학에는 여행도 가보면서 공부 이외에도 중요한 많은 것들을 얻어야 합니다. 매 학기마다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보면서 다잡아 나간다면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다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데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2년 반 뒤에는 이런 동기회가 되었으면



MBA 41기 동기회장
한국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한국지사장
문병혁

오래 전부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경영대학원 진학에 대한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년을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원서를 접수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학면접고사를 보았다. 그런데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께서 MBA는 30대, 40대가 주축인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공부하기 힘들다고 AMP에 가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하시는 게 아닌가. 불합격 통보의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오하고 지원하였으며 열심히 하겠으니 MBA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여 겨우 합격이 되었다.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교수님들, 선배님들, 동기들을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지도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의 학교생활을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다. 특히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시험준비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또한 학교수업 시간에 쫓겨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회사업무로 수업이 끝난 늦은 시간에 잠 못 자고 해야 할 때는 괜히 입학했다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이런저런 힘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만을 남겨 놓았다는 것이 내 스스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부를 졸업하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접하는 학교생활은 학부 때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

학부 때의 나의 모토는 지식탐구와 낭만창조였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지식탐구는 뒷전이었고 낭만창조라는 미명하에 놀기 바빴다. 도서관은 구경 삼아 몇 번 가봤을 뿐이고 강의실에 있었던 시간보다는 술집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미리 해명하는데 이 얘기는 나의 경우고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대학생은 지식탐구와 낭만창조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고 있었다. 아니 지식탐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학생들도 많았다.

하지만 MBA에서의 모토는 지식탐구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학부 때와 같이 지식탐구는 잠시 접어두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160여명의 동기들. 각기 맡은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험있는 전문가들로 참모진을 구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또 다른 2년 반 뒤에는 이런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화합하는 동기기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우리 동기들 사이에도 친한 동기들과 그렇지 못한 동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30~40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친할 수 있겠는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학교생활에서 조그마한 오해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은 없었던가?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동기라면 굳이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굳이 구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친한 동기와 조금 덜 친한 동기가 있다면 모를까.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두가 친근한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다른 2년 반 뒤에는 이런 화합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협력하는 동기기회”

서로가 가진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고 도움 받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1학년 말, 41기 송미란 회장님이 원우회장으로 당선된 후, 집행부를 구성하고 원우회 집행부 1차 Workshop을 가졌었다. 각 부서에서, 배당된 2010년 원우회 행사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정말로 훌륭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인재풀이라면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후 이 훌륭한 계획들에 의하여 2010년 원우회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원우회 집행부들이 보여준 기획력과 추진력은 정말로 훌륭하였다. 원우회 집행부뿐 아니라 수업 시간이나 다른 모임에서 대화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다른 동기들의 능력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런 동기들이 있어 자랑스럽고 내가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여 얻은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이제 이런 우리 동기들의 능력을 결집하여 서로 협력한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또 다른 2년 반 뒤에는 이런 협력하는 동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봉사하는 동기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전문지식을 우리 동기들끼리만 공유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우리 대학의 김광수명예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신 부울경 프로보노협의회에 가입을 하였었다. 나 외에도 우리 동기 몇 명이 같이 동참을 하여 발대식까지는 하였으나 아직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지 도움을 요청 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설령 프로보노협의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어딘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 믿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2년 반 뒤에는 이런 봉사하는 동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41기 동기회의 무궁한 발전을 믿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동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바이다.

“동기 여러분 파이팅”



晩學의 즐거움



MBA41기 원우회장
(주)바이저 대표이사
송미란

경영대학원 소식지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각양 각색 각지의 근무처에서 색다른 땀방울들을 흘리실 소중한 우리 원우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았던, 몸담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小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常持四字 勤謹和緩 (상지사자 근근화완)”

“인생을 잘 살려면 이 네 글자(勤謹和緩)를 항상 간직하자” 라는 뜻으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주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말을 꼭 간직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적어봅니다.

그리고 네 글자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勤 : 職務(직무)에 힘쓰는 일

謹 : 行動舉止(행동거지)를 操心(조심)하는 일

和 : 同僚(동료)간의 調和(조화)를 이루는 일

緩 : 每事(매사)를 서두르지 않고 沈着(침착)하게 해 나가는 일

나비의 날개짓이 수만마일 떨어진 곳의 날씨를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씩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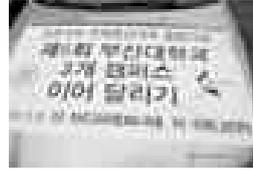
배움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했던 원우들과의 인연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경야독은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이러한 우정들이 큰 울타리가 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학의 즐거움을 많은 분들이 느끼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소식지 창간을 축하드리며 부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캠 이어달리기



● 경영대학 및 경제통상대학 출범을 기념하며 밀양~양산~부산 3개 캠퍼스 이어달리기가 지난 2010년 10월 30일 개최되었다.

2006년에 부산대-밀양대 통합과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교수마라톤클럽이 주최가 되어 처음 시작돼 작년에 6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3개 캠퍼스 구성원들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를 줄여 일체감을 형성하고 각 구성원의 건강증진 그리고 대학과 지역 사회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총 61.1km에 이르는 달림길에서 내·외부 클럽을 포함 교수, 교직원, 학생,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 1 구간 밀양캠퍼스~천태사, 제2구간 천태사~양산캠퍼스, 제 3구간 양산캠퍼스~노포동삼거리, 제 4구간 노포동삼거리~장전캠퍼스까지 총 4개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경영학과 김낙대(경영학과 3)학생은 “함께 달린 선배, 후배, 학교 교수님들이 격려해주시고 물도 건네주시는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지점까지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가자 모두가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며 대학의 발전을 염원했다. 한편, 이어달리기 대회가 끝난 후 오후 5시 30분부터는 장전캠퍼스 정문 앞 효원굿플러스에서 이어달리기 대회 해산식 및 이어달리기에 참가한 유학생과 재학생/효원가족 간의 자매결연을 맺는 행사가 마련되어 대회의 마무리를 훈훈하게 했다.

아름다운 우리 캠퍼스에서 느낀 러너스 하이(Runner's High)

글. 200743122 경영학과 김 낙 대

● 2010년 2학기 군대 전역 후 전공기초 과목인 통계학 수업을 수강하였다. 당시 수업을 하신 김유일 교수님께서 중간고사가 끝날 때 짬 강의를 위해 ‘캠퍼스 이어달리기 대회’를 소개 하시며, 수업을 듣는 학생 역시 참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달리기에 완전히 빠져있던 나는 ‘캠퍼스 이어달리기 대회’에 꼭 참가하겠다고 다짐했었고, 10월 30일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10월 30일 아침 학교 본관에 모여서 학교 버스를 타고 밀양캠퍼스로 향했다. 이날 날씨는 그야말로 가을 날씨였는데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란 말처럼 높고 푸른 하늘,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 달리는 데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김유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마라톤 동호회 멤버들, 부산대 출신 같아 보이는 삼촌 및 이모 연배의 선배님들, 부산대 달리기 동아리 ‘맨발로’ 멤버들, 많은 중국 학생들, 그리고 통계학을 수강하는 나와 07학번 정명교학생이 참가하였다. 밀양캠퍼스에서 출발하여 양산캠퍼스를 거쳐, 장전캠퍼스가 도착 지점인데,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리고 힘들면 뒤에 항상 대기하면서 따라 오는 버스에 탑승 가능한 방식이었다. 총 61KM 구간인 만큼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당시 해병대를 전역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해병대 각개 바지에 해병대 민소매티를 입고 달린 나로서는 ‘해병대가 중간에 버스 타도 되려나’라는 군인정신으로 중간에 버스를 탈 수 없었다. 일명 해병대 정신으로 모든 구간을 뛰게 되었다. 꾸준히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전문용어로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은 일정 시간 이상 달리기를

지속하면 몸속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그때부터는 힘들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날 캠퍼스를 이어 달리는 동안 아름다운, 점점 깊게 물들어 가는 가을 풍경을 만끽하여 마치 가을 산책을 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중간 중간 다함께 물을 마시거나, 간단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 해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도, 활기 넘치게 달리는 모습에 또 다른 젊음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장전 캠퍼스 학교 본관에 도착 후에는 효원굿플러스 뷔페에서 해산식을 가졌다. 해산식에서는 캠퍼스 이어달리기에 참가한 유학생들과 재학생, 효원 가족 간의 자매결연 행사도 함께 진행 되었는데, 국적을 떠나 부산대 학생으로서 많은 이야기와 공감을 나눌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고 나니 발바닥이 아파 오고 온몸이 쭈시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완주하였다는 자부심과 보람 덕분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다.

무언가에 몰두하여 일정 기간 계속 하게 되면 그 무언가를 앞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 흡연이 그렇고, 게임 역시 그렇다. 나의 경험상 달리기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른 중독, 삶에 활기를 불어 넣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독이라는 생각이 든다. 달리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여러분도 몸소 느껴 보길 바라며, 다음번 캠퍼스 이어달리기 대회에는 함께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영대학출범기념 체육대회

● 경영대학 출범을 축하하듯 화창한 날씨 속에, 2010년 11월 3일 경영대학 출범 기념 체육대회가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열렸다.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경영대학장 김우일 교수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미리 주문 제작한 경영대학 단체 티셔츠를 나눠 입고, 4팀으로 나누어 족구, 피구, 줄다리기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경영인들끼리의 화합을 다졌다. 첫 종목인 족구 경기에서는 교수님들과 남학생들의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졌으며 족구 경기에 이어 여학우들의 피구 시합이 진행되었다.



피구 시합이 끝난 후에는 건빵 빨리 먹기 대회와 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가 열려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학생들이 건빵과 막걸리 대회에 참가하여 경연을 펼쳤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에는 OX퀴즈풀기 대회가 열렸다. 퀴즈 문제에는 출범이후의 경영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가 새로 출범한 경영대학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체육대회 막바지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줄다리기 경기가 펼쳐졌고, 학장님의 제안으로 '상학관 한 바퀴 달리고 돌아오기'라는 미니 게임으로 체육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주로 강의실에서만 마주했던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함께 맘을 흘리며 한마음이 되었고 몸도 마음도 한층 건강해진 경영대학 체육대회였다.

체육대회 폐회식후에는 효원굿플러스 지하 1층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경영대학 발전을 기원하였다.



경영대학 학생회 출범식

● 2011년 3월 30일 조금씩 봄기운이 느껴지는 화창한 날 경영대학의 학생회 출범식이 이루어졌다. 학생회 출범식이란 당해년도 학생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알리는 자리이자, 한 해 동안 단과대학이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앞으로의 번영을 위하여 뜻에서 행해지는 행사이다. 학생회 출범식은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이지만, 경영대학 학생회로서는 처음 가지는 출범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번 경영대학 학생회 출범식은 크게 세 가지의 행사로 이루어졌다. 첫 시작은 상학관 앞 마련한 터에서 주막을 열어, 준비한 막걸리와 수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출범식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들에게 선배들, 동기들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마련해줌으로서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출범식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 작년에 새로 출범한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웅망식이 있었고, 학생회 간부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학생들의 장기자랑 시간에서는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을 대표로 한 팀씩이 나와 멋진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여 출범식에 참여한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끝으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김민한(경영대학 학생회장)학생과 양재원(경영대학 학생부회장)학생이 준비된 고사상 앞에서 절을 함으로서 경영대학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경영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학생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경영대학 출범식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음에도 다함께 정리까지 도와 경영인으로서의 성숙된 자세를 엿볼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경영대학 학생회 MATE

글.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민한

● 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민한입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출범을 경영대학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영대학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입니다. 또한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 경영' 창간호에 경영대학 학생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글을 신게 되어 기쁩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의 이름은 MATE입니다. MATE는 'Management's Another Tile is Everyone'의 앞 글자를 딴 약자이기도 하고, '함께'라는 영어단어 Mate를 뜻하기도 합니다. MATE라는 이름 안에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표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경영대학 학생회의 목표와 비전이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2011년 6기에 이르기까지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라는 일념아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매년 신입생 중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생회에 가입해 경영대학 학생회 업무를 자신들이 직접 토의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MATE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외에 홍보부, 문화부, 기획부, 정보부, 교류부, 총무부로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경영대학생들의 복지증진을 기본 목표로 삼고, 업무 분담을 통해 각 부서 특징에 맞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는 경영대학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고자 수시생모임, 간담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연례행사로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학생들이 모두 함께하는 출범식, 경매제 그리고 경영대학 체전, 주막 등의 행사를 통해 경영대 학우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과 3,4학년이 만나는 신규대면식 행사로 경영대학 학생들 간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MATE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연례행사 외에도 신규 사업안을 기획하거나, 기존 행사들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회 MATE는 더욱 높이 비상할 경영대학을 대표하여 모든 경영인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학생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학우들을 먼저 생각하는 MATE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 3월 일본 지진 해일 피해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로 인해 화두가 된 것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이다.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예민했던 가운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초청으로 경영대학에서는 지원자 20명을 선발하여 2011년 6월 22일 ‘경영대학 산업현장견학’을 하였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로 지질이 원자로를 설치하기에 좋은 암반이 있고 냉각수 사용이 쉽고 기상 조건과 상수원이 좋은 이유로 적지로 선정되었다. 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8년 4월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지난 1985년까지 4호기가 완공되었다. 현재 고리에는 모두 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이며, 인접한 지역에 신고리 2~4호기가 건설되고 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경영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가장 먼저 홍보담당자의 인솔 아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운영방식, 발전시스템 설명을 들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리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확신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후 고리원자력 발전소 내 자체적으로 마련 된 홍보관을 관람하였는데, 전시 된 모형을 통해 에너지 발전의 역사와 원자력 발전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각 부분을 축소해 놓은 모형을 직접 조작해 봄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홍보관에서 일정을 마친 후에는 전망대로 이동해 고리원전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경영대학 학생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는지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유사시에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화석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한 만큼 안전하고 철저한 개발 관리를 통해 나라에 더 큰 힘을 주는 발전소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경영대학 산업현장견학 _ 고리원자력발전소·부산 북항 현장 견학



2011년 6월 23일에는 경영대학 학생들이 부산항 일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대학에서는 지원을 받아 부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부산항을 선상에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부산항은 한국 최초의 근대항으로 오랜 기간 내·외무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세계 3~5위 안에 들만큼 규모나 산업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항이다. 현재 부산항은 동북아 허브항으로서 다시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천혜의 입지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항만건설 기술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비용이나 항만효율에 있어 세계 어느 항만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 유치와 정부의 지원 아래 부산의 최대 현안 사업인 북항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견학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도움을 받아 ‘새누리호’에 탑승하여 재개발중인 북항 현장과 자성대부두, 감만부두 등을 선상에서 견학하였다. 학생들에게 부산항은 친근한 이름이긴 하였지만, 실제로 방문을 해본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학생들은 부산항의 큰 규모에 가장 먼저 놀랐고, 많은 선박과 가득실린 컨테이너를 보며 세계적인 물류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평소 개인적으로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부산항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느낄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2011년 6월 21일, 22일 양일간의 경영대학 산업현장 방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나 책에서는 얻지 못하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양일간의 견학을 통해 많은 전문적 지식을 얻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경영대학학생들에게 대학시절 산업현장을 체험해 본다는 자체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다양한 학교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글. 경영학과 4학년 김정길

● 무언가에 쫓기고 이유 없이 바빴던 2011년도 1학기, 4학년이라는 숫자의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수업이 끝나면 상학을 벗어나 도서관으로 향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재빨리 빠져나오기 급급했던 상학관에 예전과 다른 새로운 활력, 변화의 바람이 느껴진 것은 상과대학에서 분리된 경영대학의 본격적인 운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상학관 게시판에 게재되어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런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껴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여러 지원 사업 중 학기가 끝날 때쯤 나의 관심을 끈 것은 '고리원자력 발전소 · 부산 북항 산업현장견학'이란 프로그램이었다. 개별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방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견학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경영대학의 학장이신 김유일 교수님의 MIS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대학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하라'고 독려하신 것도 적지 않은 참가 이유이기도 했다. 산업현장견학은 양일간 진행되었다. 우선 첫날인 6월 20일은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있는 상태였고 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다뤄지는 곳이라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던 곳이다. 여름 햇살이 강하게 내려 쬐는 오후 1시 30분쯤 출발하여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선 발전소 홍보관에서 개략적인 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운영방식, 발전시스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전기,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2중, 3중, 4중의 시스템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 형식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는 설계방식부터 다르며 수 십년간 운영으로 그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다하여 다소나마 안심되었다. 홍보관에서 관람을 마치고 발전소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망대로 이동하였다. 전망대의 우측 아래로는 고리원전 1~4호기가 보이고, 좌측 아래로는 얼마 전 완공된 신고리원전 1,2호 그리고 작은 하천을 사이로 건너편엔 한창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가 보였다. 또한 화석원료의 고갈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해 차후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이 주변에 건설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발전시설들이 주변에 펼쳐져있으니 주차되어져있는 자동차가 미니어처처럼 보였다.

전망대를 끝으로 홍보관으로 돌아와 간단히 기념사진을 찍고 학교로 돌아왔다. 짧은 오후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점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 마음이 개운해진 산업현장견학 첫날이었다.

6월 21일 화요일 아침, 곳은 날씨 속에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부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경영학과 선배님의 도움으로 선상견학이 예정되어있었다. 취업을 준비 하는 동안 부산항만공사라는 회사에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견학은 어제와는 또 다른 호기심이 있었다. '동북아 허브 항만 도시 부산'이란 수식어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실제 항만의 기능과 항만이 운영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다. 영상자료를 통해 컨테이너가 거대한 선박에 의해 선적되는 모습이 전부였다. 북항에 도착하여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누리호'에 탑승하여 선상견학이 시작되었다. 40분간 북항 주변을 항해하며 시설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속이었지만 빌딩보다 큰 크기의 크레인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선적하고 있었다. 설명에 따르면 북항은 하나의 큰 항구이지만, 그 안에서 수용량, 물류량, 선박 크기 등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다시 나누어져 일반 기업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시설물을 대여해주고 배가 정박하는 동안 지불하는 정박비용이 주 수입원이라고 했다. 설명도중 낯익은 이름인 허치슨터미널주식회사가 귀에 들어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허치슨터미널주식회사가 북항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역시 세계적인 항만이란 생각이 들었다. 견학도중에 정박해있던 미군수송함 주변으로 수십 대의 미군장갑차가 대기한 모습을 보았는데, 며칠 뒤 뉴스에서 스트라이크부대의 장갑차가 국내로 추가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북항 일대는 허브 항만의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위해 민자 유치를 통한 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바다 일부를 추가적으로 매립하여 거대한 건물을 세워 항만을 통제하는 핵심기능과 또 하나의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북항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사이에 40분이라는 견학 시간은 깜짝 할 사이에 끝났다. 10년 뒤, 달라질 북항의 모습만큼 변화해 있을 내 모습을 위해 오늘의 견학은 4학년이라는 시점에서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늘 집-학교-도서관 그리고 책, 미디어를 통한 단편적인 지식습득에서 실제로 산업현장을 견학하는 것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경영대학의 출범과 함께 많은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계획, 실행된다고 들었다. 그만큼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산업현장견학이라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학교행사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활동해보라고 후배님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사회에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활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엔.터.프.리.너.십



● 2011학년도 경영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엔터프리너십'이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이 수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의 고위관료, 예술, 스포츠 등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90분간 강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목이다. '글로벌 엔터프리너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인사들의 특강을 통해 경영학과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경영학과 학생들의 이상적인 'Role Model'을 제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되었다.

경영대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게 있다면 기업을 정신 혹은 경영 마인드라 불리는 엔터프리너십이다. 이 강연은 대학을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에 맞는 'Role Model'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Role Model'을 통해 학생들은 4년간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경력개발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글로벌 엔터프리너십'은 또한 다양한 분야의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강연자로부터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연사들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은 물론,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과 같은 직업기초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경영대학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자신들의 황금빛 미래를 그려보며 자신이 그리는 방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Role Model'을 생각하며 각자의 꿈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훗날, 이들이 멋진 기업가 혹은 저명인사가 되어 모교의 사랑스런 후배들 앞에서 '글로벌 엔터프리너십' 강의를 할 날도 머지 않았다.



글. 경영학과 201143247 윤진성



● 대학에 갓 들어와 처음 강의시간표를 보며 생각 했던 건 Global Entrepreneurship 이라는 강의는 무엇을 배우는 걸까 였다. 대학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답은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11학년 경영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경영학과 전 학생이 매주 화요일 한 장소에 모여 90분간 외부 초청인사의 강연을 들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수강하며 좋았던 점은 기업체의 최고 경영자 선배님들만 오셔서 초청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정부의 관료,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대의 이름을 빛내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세계가 원하는 글로벌인재가 되어야 한다.' 였다. 매번, 책으로 수없이 봤던 글이라 별 감흥 없는 평범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실제 사회에 나가 치열하게 노력하신 선배님들에게 직접 이런 말을 들으니 책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잠들어있던 나의 열정을 일깨웠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에게 수업을 들음으로서 여러 분야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배경지식도 늘릴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었다. 그리고 강연 이후 선후배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직접 뵙기 힘든 분들의 강연이라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질문을 나누고 싶었는데, 경영학과 1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의였고, 강의 시간이 10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소 아쉬웠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강의편성을 일주일에 2회 또는 강의 시간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학기 동안의 Global Entrepreneurship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다 넓어졌다고 생각 하며, 앞으로 펼쳐질 나의 대학생활에 있어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경영대학 학생 27명은 2011년 6월27일 부터 7월4일 까지 경남 사천시 문화마을에서 농활에 참여 하였다. 농활이란 농촌 학생 연대활동을 일컫는 말로 농촌에 가서 단지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면서 농촌의 현실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농활 일정이 농가가 대부분의 농사일을 끝낸 시기에 잡혔기 때문에 큼직한 일은 남아 있지 않았지만,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갖가지 일들이 꽤 남아 있었다. 키위수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매실수확, 감자재배, 모내기 등을 도와 오전과 오후작업으로 나누어 농촌 봉사활동을 하였다. 농활 활동에서 농가 일을 도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바로 농민과 학생 간 간담회이다. 이번 농민-학생 간담회는 마을에 사시는 여러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정성스레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지금의 농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주신 덕분에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며 가까워지고, 책에서만 배우고 말로만 듣던 농촌 일손부족,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직접 듣고 이해하면서 실제 농촌현실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농촌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농활 출발 전 경영대학에서는 '농촌 봉사활동'과 '농민-학생 간담회'외에도 마을 어르신들과의 친근함을 더하기 위해 '염색해드리기' 활동도 준비하였다. 농활 6일차에 학생들은 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염색해드리기' 활동을 직접 홍보하였고, 마을 회관에서 모이신 어르신들께 염색을 해 드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학생과 어르신 모두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정성스레 염색을 하면서 그 어색한 기운은 모두 사라지고 어느 새 마을 회관에는 훈훈한 분위기만 감돌았다. 농활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몇몇이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돕고 며칠을 지내다 오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일손을 돕는 것 이상으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께 먼저 한 발짝 다가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깨와 다리 주물러드리고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 농촌과 학생의 소통과 공감의 농활의 참 의미가 아닐까 한다. 이번 경영대학 농활에서는 학생들이 일손 돕기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농활에 참석한 학생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사천시 문화마을 분들에게도 손자, 손녀 같은 학생들과 함께한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농촌 학생 연대활동

글. 경영학과 201143331 최 소 민

●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7박 8일간 경남 사천시로 문화마을로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을 다녀왔다. 사천시 공설운동장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마을을 돌며, 주민 분들께 부산대학교에서 사천시로 농활을 왔다는 것을 알리고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다음날 작업을 준비했다. 사천시의 특산물에는 참다래와 매실이 있는데, 우리는 직접 참다래와 매실 농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평소 마트에서 파는 키위만 먹어왔고, 한국에서 참다래가 자란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나로서는 직접 수확한 참다래가 신기하기만 하였다. 참다래 나무는 크기는 매실 나무나 사과나무 보다 훨씬 작지만, 묘목에서 4년 이상 자라야 나야 참다래가 열린다고 한다. 참다래 수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참다래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의 손길이 필요로 하였다. 2년 묘목을 키워 2년 후에 참다래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지가 쳐지지 않도록 결속작업과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참다래는 적과도 해야 하며 하나하나마다 약을 주는 작업도 해야 했다. 우리들은 20kg 퇴비를 나무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도왔는데, 농촌의 부족한 일손으로 그 넓은 밭을 키우시는 농부아저씨 생각에 가슴도 아팠고, 아저씨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것 같아 보람도 컸다. 이 후 우리는 사천의 또 다른 특산물인 매실을 따는 작업도 했다. 매실 나무 하나당 수백 개의 매실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나무 마다 걸려있는 거미줄과 많은 벌레를 때문에 힘들었지만, 함께 간 친구들과 노래 부르며 즐겁게 작업하다보니 힘들다기보다 보람차고 즐겁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 매실을 다 따고 난 후에는 매실을 크기 별로 분류해서 포장하는 작업도 했는데 내가 직접 판 매실을 판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컸다. 저녁 시간에는 마을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간담회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간담회에서 농사는 천재지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얼마 전 태풍과 추위로 인해 참다래 손상이 심하다며 한숨을 내쉬는 아저씨들을 보며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또 이내 웃으시며 학생들과 다른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려는 모습에 가슴 한 구석이 찡해왔다. 처음 농활을 준비할 때에는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농활을 접하고 나니 노동의 소중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말 그대로 농활은 농민 학생연대활동으로서 단순히 봉사활동의 의미라기 보다 더 큰 연대의 의미를 깨닫고, 농민 분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의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힘들다는 것은 많이 들어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농촌의 힘든 현실에 대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PNU BIZ 경영사례연구

-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27일 상학관에서 PNU BIZ 경영사례연구 대회가 열렸다. 경영사례 연구는 기업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들을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인 기업의 역사 및 철학, 당시의 기업 내부적 능력 및 기업 외부적 상황, 기업의 한계점 등 사례연구 기업의 모든 모습과 특징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사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학문적 지식을 실제 경영활동에 적용시켜 봄으로서 자신의 경영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일관된 행동계획 그리고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미국의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이나 법학대학원(Law School)에서 이루어지는 90%이상의 수업이 이러한 경영사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영사례 연구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도 경영대학 출범이후 변화의 일환으로서 이번 경영사례연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상과 대학 시절에는 경영대학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웠는데 반해, PNU BIZ 경영사례 연구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정확히 초점이 맞춰진 긍정적 시도라고 평가 된다. 이에 학생들의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었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팀의 수가 많아 서류전형을 거친 후에 본선이 진행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경영대학장 김유일 교수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선은 22개팀 44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첫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들의 많은 노력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수준 높은 대회가 펼쳐 질 수 있었다. 우승자를 가려야 하는 대회이기에 서로가 경쟁자이긴 했지만, 상대방의 수준 높은 경영사례연구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영사례연구 대회에 참여했던 경영학과 06학번 최병진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이론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경영사례를 연구해보고 이를 접목해 봄으로써 실제 경영을 몸소 느낄수 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번 대회는 경영대학 출범 이후 학교와 학생 모두 한층 더 발전,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회였으며, 시대 흐름과 학생들의 욕구를 잘 반영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높이 평가된다. 매년 정기적인 대회를 통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대표하는 대회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 권민철(회계 3), 김현경(회계 4)

●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를 신청하게 되면서 처음 고민해야 했던 것은 '무엇을 선택할까?'였습니다. 보통의 공모전과는 다르게 기존의 사례를 분석해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했기 때문에 분석할 경영 사례를 신중히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해야 했던 Harvard Business Case에는 다양한 경영 분야의 사례들이 많았는데, 참고할 자료가 많은 마케팅이나 CSR 등으로 할지, 저희 팀원 모두 전공한 회계를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계학을 발표를 통해서 전달할 생각을 하니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저했지만, 전공 공부를 더 한다고 생각하고 회계 분야의 경영 사례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철

해석부터 철저히

선택한 경영 사례를 받은 뒤에는 원문을 철저히 해석하였습니다. 팀원과 각자 원문을 해석해 와서 비교해보고 수정하는 일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쉽게 해석했던 글들이 알고 보니 엉뚱하게 해석을 했거나 오히려 어려운 전공 용어였던 적이 있어서 당황하며 수정하곤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해석을 잘 다듬어 두었던 것이 나중에 발표 준비를 할 때 원문을 보지 않고도 빠르게 내용을 이해하며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표현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중점을 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였습니다. 팀원과 같이 연습장이다가 그려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를 생각해 보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경영 사례가 회계였지만 분개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같은 사례만 분석해 온 저희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발표에서 분개를 쓰면 내용 전달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용을 최대한 그림으로 쉽게 풀어보려 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수치화

해결 방안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수치화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답은 재무 관리, 재무 회계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수치화 시킨 부분들도 복잡한 부분은 Q&A로 계산 방법을 넣어 두고 결론만 활용했던 것이 내용 전개와 이해를 쉽게 한 것 같습니다.

발표 연습을 철저히

파워포인트를 완성하고 실제 발표에 앞서서 미리 발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을 적은 뒤에 말로 해보고 어색한 부분을 계속 다듬어 나갔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완성하고 발표 연습을 하면서 발표자와 파워포인트 진행이 맞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발표는 처음에도 많이 틀렸고 대회 직전까지 잘 맞지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대회에서 오히려 많이 연습해 둔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된 프로그램

대회 부상이었던 해외 연수 기회를 통해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혼자 가는 것은 처음이었고 설레는 기분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경영 사례를 번역, 분석하는 것부터 해외에 다녀오는 것까지 저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챌린저

- 2011년 5월 27일 상학관에서는 해외 탐방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PNUBIZ Global Challenger 2011 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Global Challenger 대회란 경영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의 각 국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 단체 등 탐방 지역을 선정하여 탐방 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계획을 세워 연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로 탐방제안서를 작성해서 경연을 펼치는 대회이다. 탐방제안서는 '주제의 참신성 및 유용성', '탐방의 필요성 및 문제점 파악', '탐방지 선정, 탐방 일정의 적절성', '전체 탐방계획서의 논리성, 일관성', '제반 준비의 충실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중요시하며 각 팀 구성원의 적극성 및 성실성 역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같은 주제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탐방제안서의 내용이 더 참신하고 타당한가는 학생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3개 팀, 26명이 열띤 경연을 펼쳤고, 대상은 '교환학생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주제로 탐방계획서를 작성한 GPS(이재용, 박철우)팀이 수상했다.

팀장인 경영학과 05학번 이재용씨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런 대회를 통해 뜨거운 열정과 학구열을 가진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파랑새를 찾아서(유은지, 김현지)팀이 수상했으며 대상, 우수상 팀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해외 탐방지원금이 수여되었다.

향후 두 팀은 해외 탐방의 기회를 가진 후에 탐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또 다른 글로벌 챌린저 도전자들의 본보기가 된다. 사실, 이제까지는 교내에서 경연을 펼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진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연구와 프레젠테이션을 마음껏 펼칠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올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내년, 내후년에도 경영대학생들에게 도전 정신과 투자를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 200543283 경영학 이재용 / 200543207 경영학 박철우

이재용

●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용입니다. 간단하게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온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군 입대 전까지 학사경고를 2번이나 받으면서 최악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학생입니다. 복학 후, 그간 포기하고 있었던 성적과 많은 것들이 취업이라는 과제와 함께,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뛰는 해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게시판에서 Global challenger 2011 대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회공고를 보자마자, '이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1등 500만원과 2등 400만원이라는 큰 상금 앞에서 주눅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 하고 나서 망쳐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에 결국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Global challenger 2011 과 같은 학내행사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꼭 도전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맘에 들었던 점은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점제한은 저에게 있어 여러가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런 참가제한 없이 자유로운 주제로 참가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맘껏 펼칠 수 있는 Global challenger와 같은 대회는 기회가 된다면 매년 실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Global challenger 뿐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수많은 행사나 일정들을 학생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 축제만 보더라도 차려놓은 밥상이 더 큰 상황입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런 문제는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Global challenger와 같은 대회참가는 처음이었습니다. 수업에 있어서도 열심히 발표를 해본 경험도 없었고, 준비에 열심히 참여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막상 참가신청을 하고 난 후,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프리젠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혜택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기획에 있어서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터뷰를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친해진 경제학과 선배님도 큰 혜택이라고 생

각합니다.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도, 다른 우수한 팀들의 발표 방식과 프리젠테이션 구성 방식, 주제 선정과 나름의 조사 방식을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받은 것이 부끄러울 만큼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기대반 의심반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대상발표를 듣고 난 후, 역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보는 쾌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상 후 혜택 하면 상금 500 만원을 떠올리시겠지만, 저한테는 500만원 보다, 저 스스로한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점,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고, 다른 팀들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배울 점들 또한 주제를 가지고 해외탐방을 통해 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히 500만원이라는 상금에만 혜택이 그치지 않습니다. Global challenger가 내년에도 시행이 된다면, 저 또한 다시 참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Global challenger에 참여한 여러 팀들의 인상적인 발표방식과 프리젠테이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00번 참가하면 100번 배울 점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나 참가도 하기 전에 시간상의 이유, 자신감의 이유 등으로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안타깝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해서 단순히 관람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 Global challenger 에 도전하실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Global challenger 는 학교에서 오직 학생들만의 참가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주제가 거창할 필요도 없고, 학생수준의 사고를 넘어선 해결방식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거창한 주제로 연구원 수준의 해결방식을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제를 최대한 좋은 주제로! 해결방식을 최대한 수준 높아 보이게! 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수업시에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Global challenger 는 프리젠테이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금을 받고, 해외탐방 후 기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폭 넓은 준비를 하게 되실 것이고, 구수한 냄새보다는 실속 있는 맛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Global challenger 에 참가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글도 쓸 기회를 주신 학교와 편집위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학생 친선의 밤

● 2011년 5월 27일,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이 떠들썩했다. '제 2회 외국 유학생 친선의 밤' 행사가 열린 것이다. 외국 유학생 친선의 밤 행사는 졸업식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그들이 고국으로 떠나기 전 졸업을 축하하며 낯선 타국 땅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또한 외국 유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2월 경영대학에서 처음 개최하였다.

2011년 5월에 열린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경영대학 유학생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내 전체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10·16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5시에 대외교류본부장, 경영대학 학장/부학장의 축사와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는 우수졸업생의 시상식을 진행한 후,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무대가 펼쳐졌다. 유학생들의 숨겨둔 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려하고 멋진 공연들이 펼쳐졌다. 노래, 무용, 댄스, 밴드공연 등 수많은 공연들이 분위기를 한껏 띄어 놓았다. 공연 후에는 공연 시상식과 경품추첨이 있었고 그 후에는 다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며 서로 마음을 열고 한국 유학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유학생 친선의 밤 행사는 최근 국제화 시대에 따라 늘고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노래, 무용과 같은 공연들은 고향에 대한 유학생들의 그리움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만찬자리에서는 서로 울고 웃으며 유학생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유학생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그리웠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자신과 서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경영대학에서 시작한 유학생 친선의 밤 행사가 앞으로는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행사가 되어 유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글. 경영학과 4학년 마 조 군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된 외국인유학생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국의 수 많은 외국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그 곳에서 고향의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자기 고향의 전통 노래와 춤을 공연하였으며, 서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뜻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공연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끔 간절히 고향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공연을 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조금이나마 달래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에게는 뜻 깊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학생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중국의 전통 춤을 쳤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학생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한국어로 랩을 유창하게 잘 하였습니다. 이처럼 멋지고 뛰어난 공연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공연 중에서 경품 추첨 행사도 있었습니다. 경품을 받은 친구들은 아주 좋아했고, 저도 운이 좋아서 많은 경품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주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정말 뜻 깊고 멋진 공연을 보았으며 모든 유학생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멋진 자리를 마련해주신 학교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IT 봉사단 몽골을 다녀오다

글. 팀장 박선릉



● ‘대한민국 IT 봉사단’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최로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파견하여 선진 IT 능력을 전수하는 봉사활동이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나에게는 큰 기회로 찾아왔다.

IT 교육 2명, 통역 담당 1명, 문화교육 1명으로 이루어진 총 4명으로 팀을 만들어 준비했고, 모든 시험이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모두 머리를 싸매고 철저히 준비한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 대표로서 몽골이라는 국가에 IT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이기 이전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대표로서 나의 포부와 봉사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학장님께 전해드렸고, 봉사활동에 큰 보탬이 되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흔쾌히 허락하셨다. 국가와 경영대학의 든든한 지원 아래 부산대 경영대학과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능력을 몽골에 전수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난생 처음 내딛은 몽골에서 가장 처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낯설고 약간은 거북한 냄새였다. 이 냄새가 몽골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우리 가슴으로 불어넣었다. 하지만 드넓은 초원과 상쾌한 공기, 그리고 우리를 친절히 맞이하는 몽골 현지인들의 태도는 마음 한 편을 차지하고 있던 두려움을 모두 설레임으로 바꿔주었다.

한국인과 몽골인, 서로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르쳐주겠다는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국경을 초월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전해졌는지 우리들

의 부모님 연배이신 교육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게다가 교육 2주차 주말에는 함께 소풍을 가자고 제안하셨고, 몽골의 맑은 공기와 물,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전통 요리인 ‘허르헝’도 직접 요리하여 대접해주셨다.

몽골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준 만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했다.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정으로 알려주기 위해 애를 썼고 우리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들도 배운 대로 잘해주었다.

내가 알고 있는 IT 관련 능력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큰 보람이었지만 무엇보다 국가도, 연령대도 다른 사람들과 교감했다는 사실이 이 봉사단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이였다. 대한민국 IT봉사단의 일원으로서 몽골이란 낯선 곳에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현지인들에게 전해 주고자 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내가 도움을 주려고 간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그 곳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맑고 순수했던 그들의 눈동자, 밝은 표정, 따뜻한 마음들을 그대로 전해 받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 IT봉사단에게 ‘무료 봉사활동’을 해준 것은 아닐까.

아직 몽골을 경험하지 못한 주변 지인들과 그리고 후배들에게 몽골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는 대한민국 IT 봉사단에 도전하여 내가 얻은 값진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2012년 입시안내

● 『경영학과』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전체합계	101	157	258
정원내	• 일반전형 -가군	-	126	157
	-나군		31	
	• 특별전형 -고교생활우수자	66		
	-Premier-PNU	8		77
	-사회적배려대상자	3		
정원외	•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전형	8		
	-저소득층 학생전형	6		24
	-재외국민 및 외국인	10		

※입학정원(정원내+정원외) : 258명(2011학년도 기준) (단위:명)

● 2012학년도 모집 시기 및 전형유형별 세부사항

▶ 수시모집(정원내) ◀

1. 고교생활우수자 전형

1) 지원 자격

- 2010년 2월 이후 일반계 고교(종합고 인문계열 보통과 포함) 또는 특수목적고(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전문계고교 (조기)졸업(예정)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 가. 교과우수인재선발 : 학생부(교과) 100%
- 나. 창의적인재선발
 - 학생부 교과 영역과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 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심층면접 실시

3) 선발방법

- 가. 교과우수인재선발 및 창의적인재선발 : 단계별 선발
 - ① 1단계 :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
 - ≫ ≫ 교과우수인재선발 합격자 결정
 - ≫ ≫ 창의적인재선발 평가대상자 선정(창의적인재선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
 - ② 2단계 :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심층면접(서류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창의적인재선발의 합격대상자와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결정
 - ③ 3단계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교과우수인재와 창의적인재 모두 적용)
 - ≫ ≫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 후보자 최종 순위 확정

2. Premier-PNU 전형

1) 지원자격

- 가. 인문·사회계
 - 외국어 전문교과 20단위 이상 이수, 평균 석차등급 2등급 이내
 - 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 우수자
- 나. 자연계
 - 과학(수학)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 평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 고교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경시대회 수상자(참가자)

2) 선발방법 : 단계별 선발

- ① 1단계 - 학생부 500점(교과 400점 + 비교과/수상실적 100점)
- ② 2단계 - 학생부 500점 + 면접 500점

■ Premier-PNU 전형 공인 외국어 능력시험 우수자 자격요건

☞ TOEIC, TOEFL, TEPS 취득성적은 응시일이 실적평가일(2011. 10. 14.)

구분	자격요건
영어	TOEIC 800점 이상
	TEPS 730점 이상
	TOEFL IBT 88점 이상
	TOEFL CBT 230점 이상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3.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1) 대상자별 자격요건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 백혈병·소아암 등 난치병 병력자
- 한국 백혈병·소아암 협회에서 추천한 자
 - 다문화가정 자녀

2) 전형요소 및 배점

- 학생부 교과 영역과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 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심층면접 실시

3) 선발방법 : 단계별 선발

- ① 1단계 :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
 - ≫ ≫ 2단계 평가대상자 선정(모집인원의 일정 배수)
- ② 2단계 :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심층면접(서류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합격대상자와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결정
- ③ 3단계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 ≫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 후보자 최종 순위 확정

▶ 수시모집(정원외) ◀

1. 농·어촌학생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1) 자격요건

<자격요건 '가'형>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자격요건 '나'형>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

2) 전형요소 및 배점

- 학생부 교과 영역과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 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심층면접 실시

3) 선발방법 : 단계별 선발

- ① 1단계 :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
 - ≫≫ 2단계 평가대상자 선정(모집인원의 일정 배수)
- ② 2단계 :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심층면접(서류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합격대상자와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결정
- ③ 3단계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 후보자 최종 순위 확정

2. 저소득층학생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 1) 대상자별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전형요소 및 배점

- 학생부 교과 영역과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 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심층면접 실시

3) 선발방법 : 단계별로 선발

- ① 1단계 :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
 - ≫≫ 2단계 평가대상자 선정(모집인원의 일정 배수)
- ② 2단계 : 서류(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평가, 심층면접(서류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합격대상자와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결정
- ③ 3단계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 후보자 최종 순위 확정

입학사정관 전형 -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서 작성방향

① 자기소개서는 왜?

- 성적이나 단순한 활동 목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열정 등 새로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 첫째, '나'에 대해 고민하라.
- 둘째,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하라.
- 셋째, 고등학교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라.
- 넷째, 학교생활기록부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설명하라.
- 다섯째, 논리적인 설득력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은 지양하라.
- 여섯째,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라.

입학사정관 전형 - 심층면접

1) 심층면접 출제방향

- 형태 - 개별 심층면접
- 면접시간 - 15분 내외
- 면접내용 - 종합적 평가
- 평가요소 -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등

입학사정관 전형 - 에세이

1) 에세이 출제방향

- 형식 - 자유 기술형
- 분량 - 1,200자 내외
- 시간 - 120분간 작성
- 평가요소 - 창의성, 종합적 사고력 등
- 에시문항 - 지원자 삶의 좌우명을 생각하여 적어보되, 그러한 좌우명을 갖게 된 이유나 구체적인 계기 혹은 연관된 일화를 함께 적어보시오.

▶ 정시모집 ◀

1. 정시 가군

- 1) 전형 요소별 배점 : 학생부 교과 500점 + 비교과 50점 + 수능 450점
 - 2) 학생부 교과 영역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 3) 학생부 비교과 영역 : 봉사활동 및 출결사항
- ※ 면접 미실시 (단, 사범대학 실시, 면접 50점)

2. 정시 나군

- 1) 수능 100%로 모집인원 선발

발전기금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연구 인프라 혁신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09년 더 타임스 QS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 등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혁신과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대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과 각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경영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 김유일

:: 발전기금 사용목적 ::

* 장학기금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 (0.5%)이내의 최우수 인재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 (2%)이내의 우수 인재

국제교류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 학술연구기금 -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SSCI 최우수 논문포상 :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세계적 석학초빙 사업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 국제교류기금 - 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외국인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 - 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획득

경영학교육 기반 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 - 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강의시설 확충

대학운영개선기금 :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재 등 첨단강의시설 확보

:: 경영대학 발전기금

등록금 한번 더내기

교원	최종열 1,500	황규선 5,000	곽선화 1,500	김창수 1,500	문병근 1,500	하충룡 1,500
	이균봉 1,500	김호범 1,500	신종국 1,500	방호열 1,500	김진욱 1,500	이갑수 1,500
	강원진 2,000					
동문	김형우 1,500	조헌제 1,500	정윤재 1,500	김지완 4,500	권혁태 2,000	김은홍 2,000
	옥치창 2,000	박기순 1,500	정계섭 1,500	김형진 1,500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37기 약 400,000

33기 27,000	36기 23,500	37기 29,500	39기 30,500	40기 27,500
41기 35,000	42기 26,500	43기 35,000	44기 23,000	45기 32,500
46기 23,000	47기 34,000	48기 29,500	49기 29,500	50기 24,500
51기 29,500	52기 21,500	53기 29,000	54기 17,500	55기 26,500
56기 17,000	57기 26,000	경맥 75동기 10,000	전문경영자 2,3기 10,000	MBA 37기 2,500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마라톤 후원금 33,269

구자봉 10,000 이병걸 1,000 (주)신화사 1,000 MBA34기~40기 김태곤 등 220여명
 AMP45기~54기 박종영 등 80여명 Techno-MBA1기~3기 권오중 등 24명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10만원, 2008년 6월부터)

.....: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이후 : 2010년 9월 ~ (단위 천원)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내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따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 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지역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1인1계좌 갖기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정클럽 (1억원 이상) 정준수(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 (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웅비 클럽 (1,000만원 이상) 김성자(바벨농산 대표) 10,000 김유일(경영대학 교수) 10,000

미리내 클럽 (100만원 이상)

문성욱(용원개발 대표) 5,000	김경희(AMP59) 5,000	송미란(MBA41) 5,000
김정교(경영대학 교수) 3,000	이상래(AMP59) 3,000	민병권(AMP59) 3,000
정희자(MBA41) 2,000	손인(MBA동문회장) 2,000	황건호(전국투자협의회장) 1,000
이상필(AMP59) 1,000	김재오(AMP59) 1,000	배근호(AMP59) 1,000
최무림(MBA41) 1,000	정동순(MBA41) 1,000	문병혁(MBA41) 1,000
조규성(MBA42) 1,000		

단체 출연

AMP 58기 15,000 강구철 강운형 권태구 김광식 김성자 김애숙 김용규 김인규 김종률 김종성 김주영
 김혜정 문성희 박동천 박상환 윤창영 이상기 이은희 이인희 이창근 이호형 임춘우 최영만 허영숙

AMP59기 25,000 김경희1 김경희2 김동숙 김명숙 김재오 김재환 김종남 김지혜 김진 김형태 류종국
 민병권 박상현 박용만 박은희 박종규 배근호 백창흠 서근석 서중영 성효선 송진홍 이강은 이미영 이병원
 이상래 이상필 이준수 이지연 장무애 정애기 정운교 정희 조광제 차동락 최병일 최영근 최재균 허현
 흥순옥 황보문자

경영 1인1계좌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계좌수)

교수 : 고평수(3) 곽춘중(1) 김기석(1) 김유일(10) 김정교(1) 김종기(1) 김진욱(1) 김진우(2) 김창호(1) 서문식(1) 엄철준(1)
 이균봉(1) 이장우(1) 이찬호(1) 장활식(1) 조영복(3) 최상문(1) 최수형(1) 최종열(10) 홍태호(1)

발전기금을 약정하시거나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 후기

- **편집팀장 김경영** 경영학과의 발자취를 더듬기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편의 소식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장에도 글 한 자 한자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수님들과, 관련 인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풋풋한 어린학생이지만 여느 프로 못지않은 열정과 성과를 보여준 우리 편집팀원을 정말 수고했습니다.

- **경영학과 07학번 허남건** 경영대학의 일원으로써 이번 편집일은 저에게 '단비'였습니다.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다니는 '우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 대해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학장님 그리고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경영대학의 눈부신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영학과 07학번 양재웅** 경영대학의 출범을 맞이해서 준비한 소식지 발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영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선배님, 후배님들의 관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금융공학과 10학번 최천재** 길지만 짧은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완성된 소식지를 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경영대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는 생각에 기쁘고, 한편으로는 글을 편집하고, 많은 분들을 찾아뵙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의 성장도 느꼈습니다. 소식지가 경영대학의 소식을 꾸준히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시각디자인학과 08학번 권미현** 우연한 기회로 경영대학 소식지 편집에 참가하여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방학동안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단과대학, 학과였지만 이제는 상학관 건물이 제게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어느새 경영대학 매력에 빠져나 옵니다 ^^ 앞으로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만의 색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일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 **경영학과 07학번 안성배** 시작은 경영대학의 출범을 축하하고 경영인들 간의 소식을 전하는 간단한 소식지였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풍성한 책자가 완성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다시한번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함께한 편집위원들도 너무나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